

냉전 초기(1945-1960)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임 지 연

냉전 초기(1945-1960)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지도 최 선 홍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임 지 연

임지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월 일

차 례

국문 요약	iii
1. 서론	1
2. 냉전과 전후의 국제 사회	8
2.1 냉전과 미국의 위상	8
2.2 전후 국제적 조류	12
3. 미국의 국내 상황	20
3.1 미국 사회의 흑인	20
3.2 흑인과 제 2차 세계 대전	23
3.3 반공주의의 영향	28
4. 국제 사회의 비판과 미국의 선전 운동	33
4.1 국제 사회의 비판과 여론	33
4.2 국무부의 문제 인식과 선전 운동	39
5. 흑인 민권의 성과와 국제 여론	46
5.1 법적 성과와 브라운 판결	46
5.2 브라운 판결에 대한 반응과 리틀락 사건	51
6. 결론	58
참고문헌	62
ABSTRACT	69

국문요약

냉전 초기(1945-1960)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미국 현대사의 중요한 주제인 냉전과 민권 운동은 각각 국제 관계 또는 외교적 문제와 국내 또는 사회적 문제로 구별되어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제 2차 대전 종전 직후로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 민권 운동의 진전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냉전이라는 국제 문제와 민권 운동이라는 국내 문제를 연계시켜 미국사의 두 쟁점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도래한 냉전 시기에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오른 미국은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세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또 전후에는 2차 대전의 원인이 나치의 인종주의에 있다는 시각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평화와 인권의 존중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었다. 이런 종전 후의 변화된 조류로 인해 미국의 국내 문제였던 흑인 민권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인종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내세우는 미국 안에서 인종 차별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2차 대전으로 인한 전시 변영과 참전 등 변화된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향유할 기회를 가진 흑인과 민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조류를 파악하고 이를 민권 운동의 추진력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자국 내에서 인종 차별이 지속되는 한 미국은 위선적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대외적 공산주의 선전에 즐겨 이용하는 소련과의 세력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었다.

이러한 전후의 분위기를 타고 미국의 흑인 민권 문제는 점점 국제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흑인에게 가해진 폭력 사건이나 차별적 관행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경악했고 전세계 리더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위선을 비판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인종 차별 문제가 미국의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촉구했고, 정책 입안자들도 차츰 이 문제

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내외적 압력에 직면한 국무부는 흑인을 다룬 대외 선전 활동을 타개책으로 내놓았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다. 실제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불안해질 것은 자명해 보였다.

이런 국제 사회의 비판과 대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흑인 민권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여러 민권 케이스에 법정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 인종 차별 문제가 미국의 대외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언급하며 흑인의 입장에 서서 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이런 문제 의식은 역사적인 브라운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브라운 판결의 실행에 반대하는 군중이 일으킨 리틀락 사건을 중재하는 것에도 대외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은 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후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 민권 운동의 진전은 냉전기 상황, 특히 국제 사회의 관심과 압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대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시기 민권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내적 토대 위에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민권 운동의 추진력으로 이용했다.

핵심되는 말 : 냉전, 민권 운동, 흑인, 2차 세계 대전, 대외 관계, 소련,

선전 활동, 브라운 판결, 리틀락 사건

1. 서론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이 처음으로 발을 딛은 것은 1619년 8월의 일이었다. 네덜란드 범선에 탄 20명의 아프리카인이 버지니아(Virginia)의 제임스타운(Jamestown)에 최초로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미국 흑인의 역사는 시작된다. 흑인은 미국에 뿌리내린 역사도 길고 다른 소수 민족에 비해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가장 길고 난폭했던 백인의 인종 차별 대상이 되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도,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요구되었다.¹⁾ 흑인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한 미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였다. 2차 대전으로 인해 변화된 국내·외적 여건은 민권 운동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완전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흑인의 민권 운동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운동 중의 하나였다. 흑인 민권 운동의 대중적 확산은 1954년, 학교의 인종 분리(segregation)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로 두드러진 결실을 맺었다. 이를 위시하여 1950년대 말부터 인종 차별에 맞선 공개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는데, 마틴 루터 킹(Dr. Martin Luther King, Jr.)의 활동, 연좌 농성(sit-ins), 비폭력 학생 협력 위원회(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SNCC)의 결성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후 1960년대의 활발한 민권 운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45년부터 1960년 사이 벌어진 흑인 저항 운동의 연속선상 위에 있다.²⁾ 전후의 변화하는 국내적·국제적 정세들은 민권 운동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종전 이후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중반까지의 민권

1)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은 노예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에 서명했는데, 이 선언은 모든 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노예제를 폐지시킨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 조항 13조(Amendment 13)는 1865년에 승인되었다.

2) William Chafe, *The Unfinished Journey*, 2nd ed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74.

운동의 추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민권 운동에 대한 연구는 시대에 따라 특징적인 서술 방식을 보여 왔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민권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은 국가적 중요성을 띤 인물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민권 투쟁을 주로 입법적·사법적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민권 운동기 주요 대통령의 행정부나 주도적인 민권 조직의 문서 보관소에서 나온 자료를 주로 사용했다.³⁾ 윌리엄 버만(William C. Berman)은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시대의 민권 성과에 대해 서술하면서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지지가 선의보다는 흑인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⁴⁾ 도널드 맥코이(Donald R. McCoy)와 리처드 루텐(Richard T. Ruetten)은 그들의 공동저서에서 전후 1945년에서 1953년까지 트루먼 시대에 민권 운동의 상황이 전혀 없이 변화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트루먼이 민권 운동을 지지한 것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에 교감한 탓도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⁵⁾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등장한 두 번째 세대의 학자들은 민권 운동을,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전국적인 조직들의 연합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연구의 초점을 지역 사회와 일반 대중 조직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보다는 남부 지방의 작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항쟁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그 사람들은 대도시에 본부를 둔 중앙 조직의 필요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행동했던 이들이었다. 이 학자들은 민권 항쟁이 연방정부로부터 사법적 승리를 얻어낸다는 좁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흑인 지역 사회에서 생겨난, 해방을 위한 큰 물결이었다고 이해했다. 이어 나타난 1980년대의 학자들은, 위의 두 가지 사고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

3) Steven F. Lawson, "Freedom Then, Freedom Now: The Historiograph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merican Historical Review* (April 1991), p. 456.

4) William C. Berman, *The Politics of Civil Rights in the Truman Administrati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0), pp. x-xi., 237-239.

5) Donald R. McCoy and Richard T. Ruetten, *Quest and Response: Minority Rights in the Truman Administration* (Lawrence: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3), pp. vii., 349.

다. 그들은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민권 운동을 두루 돌아보고, 마찬가지로 민권 운동의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중 매체나 자유·박애 재단 등 비정부조직이 전국적인 정치 투쟁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이나 인종간의 관계 등 지역 운동의 내적 활력을 연구하고자 했다.⁶⁾

이처럼 민권 운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시간을 거치며 다양하고 깊은 시각을 견지하고 인식을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1980년대까지는 민권 운동의 국내적 요인과 그 활력에 대부분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전후 냉전(Cold War)이라는 상황으로 인한 국외적 압력이 국내의 민권 운동의 활력에 미친 영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민권 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그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민권 운동의 역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미국의 민권 운동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미국은 유례 없는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종전 前부터 나타났던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은 종전과 더불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신생 독립국들에 민주적인 체제를 이식하여 이들을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했고, 소련은 인접 국가들을 공산화시킴으로써 세력권을 유지하고 안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처럼 둘의 입장이 상충하여 이른바 냉전이라는 50여 년에 걸친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유 진영(free world)의 구심점으로서, 소련은 공산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전후 세계 질서의 거대한 양 축을 이루며 대립하고 경쟁하게 된다.

국제 사회에서의 그 지도적 위치로 말미암아 미국의 정책과 국내 문제들은 종종 전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곤 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사례는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이 국제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민주적’ 대외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국제 사회에서 이런 이미지의 손상은 적대관계에

6) Lawson, "Freedom Then, Freedom Now", pp. 456-457.

놓인 소련과 공산 진영에게 좋은 선전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자유 진영 안에서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흑인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사건들은 이런 미국의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었기에 미국은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다. 냉전은 미국의 국내 문제를 국제적 관심거리로 만들었고 또한 그 문제들의 결과와 해결에도 영향을 미쳤다.⁷⁾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인권 문제와 국제 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모두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주목했다. 제랄드 혼(Gerald Horne)과 브렌다 게일 플러머(Brenda Gayle Plummer)의 작업은 인종과 인권, 대외 관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나오기 위한 기반을 닦아 놓았다.⁸⁾ 플러머는 1945년 이후 소련과 세계의 지도권을 다투게 된

7) 20세기 미국사에 있어서 냉전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을 일으킨 주제 중의 하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의 역사가들은 소련이 냉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런 정통주의(orthodox) 해석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 시대 베트남 전쟁에 대한 회의와 인권 운동 등, 미국 사회 내의 자기반성과 사회개혁적 분위기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수정주의(revisionism)적 해석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의거한 대외 정책이 냉전 초래의 원인이라며 미국의 대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미국의 정책이 스탈린의 협력 의지를 꺾었고, 미국에 적대적이 되도록 자극했다며, 냉전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Williams, William Appleman,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rev. and enlarged edn. (New York: Dell Pub. Co., 1962); Alperovitz, Gar,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London: Secker & Warburg, 1966); Gardner, Lloyd C., *Architects of Illusion: Men and Ideas i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Chicago: Quadrangle Books, 1970) 1970년대부터는 소위 '탈수정주의(postrevisionism)'라는 새로운 학파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경향은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절충을 시도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려 애썼다. 다음을 참조하라. Gaddis, John L.,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Paterson, Thomas G., *Soviet-American Confrontation: Postwar Reconstruction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73) 수정주의 학파의 등장 이래로 많은 냉전사가들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미국 대외 정책의 국내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요인 들로는 미국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여론, 이익집단의 역할, 의회의 태도, 의회 위원들의 사상과 영향력, 정책 결정 집단의 성격, 핵무기, 군부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탈수정주의적 입장이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의 방향과 범위가 바로 이런 국내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국내적 원인에는 흑인을 비롯한 인종 문제도 해당된다.(Walker, J. Samuel, "Historians and Cold War Origins: The New Consensus" in Haines, Gerald K., and Walker, J. Samuel, eds., *American Foreign Relations: A Historiographical Review* (Westport: Greenwood Press, 1981); 최영보, <냉전기원의 탈수정주의적 해석>, 《미국사 연구》 3 (1995) 참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로서 스탈린주의의 끄찍함을 지적했지만 미국의 남부 주들에서도 동유럽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이와 같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⁹⁾ 마이클 크렌(Michael L. Krenn)에 의하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무부와 외무 부처에 근무하는 흑인들의 수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고용 평등의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유색인들(people of color)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한 조치의 결과였다.¹⁰⁾ 메리 더지악(Mary L. Dudziak)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민권 개혁이 냉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¹¹⁾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1940년대 중반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의 냉전 초기에 미국의 민권 운동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요인들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크렌의 연구는 국무부의 흑인 고용 추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 관계와 인종주의를 분석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더지악은 냉전기 외부적 요인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권 개혁의 내적 활력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그간 국내 문제라고만 생각되어 온 민권 운동이 국제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배경과, 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성장한 흑인 내부의 변화를 차례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연구들을 보완해 국내외적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냉전기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자국 내에서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오른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공산 진영과 대적해야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인종 차별과 관련된 사건들은 국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특히 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에게는 미국을 깎아 내릴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를 제공하는 양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것은 제 3세계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

8) Mary L.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Race and the Image of American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 258.

9) Brenda Gayle Plummer, *Rising Wind: Black Americans and U. S. Foreign Affairs, 1935-196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pp. 3-4.

10) Michael L. Krenn, *Black Diplomacy: African Americans and the State Department, 1945-1969* (Armonk.: M. E. Sharpe, 1999), pp. 4-5.

11) Dudziak, *op. cit.*, p. 12.

을 미칠 수 있었다. 자유를 수호하는 모범적인 이미지를 견지해야 하는 미국은 이와 같은 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고심해야 했다. 결국 냉전기의 대외 관계는 국내적 상황 즉 민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를 위해 우선 제 2장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도래한 냉전이라는 첨예한 대립구도의 실제적 양상과 냉전이 부과한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전후에 변화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문제 의식과 그로 인한 구체적 성과물들을 돌아볼 것이다. UN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 등의 결과물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국제 사회의 관심에 노출된 결과와 미국이 국제 여론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인권 문제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전후 냉전을 맞이한 미국 사회의 분위기와 흑인 및 민권 운동의 상황을 고찰할 것이다. 당시 흑인들의 상황 변화와 민권 운동의 진전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냉전 시기 국제 여론이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국내적 기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후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반공주의의 열풍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공포와 적대감을 잘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인권 문제를 선전에 이용한 소련의 행동에 대한 염려와 경계심이 어떻게 훗날 인권 개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전후의 국제적 분위기를 타고 미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다는 실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해외 언론의 보도 자료와, 외국에 주재하는 미국 관리의 견해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문제 의식과 그로 인한 미국의 대외 선전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전 활동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국무부 관리들의 의도와 그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5장에서는 트루먼 행정부가 인권 개혁을 지지하는 법정 판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거둘 수 있었던 실제적인 성과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브라운 판결을 위시한 몇몇 판결문들에 법정 고문으로 참여한 법무부의 브리프(brief, 소송 사건 적요서)는 인권 문제가 대외 관계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한 정부의 문제 의식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브라운 판결의 실행 과정에서 남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벌어진 사건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 흑인 민권의 향상에 도움이 된 국제적 요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냉전과 전후의 국제 사회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의 종결과 동시에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미국은 자유 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에 맞서고자 했는데, 이로부터 세계를 양분시킨 긴 냉전이 시작된다. 또한 미국은 종전과 함께 전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이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대외 이미지를 유지해야만 했던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종전 후 국제 사회에 인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도래했다. 이것은 2차 대전이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인종주의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 모든 대외적 요인들로 인해 전후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는 부각될 수 있었다.

2.1 냉전과 미국의 위상

1945년 5월과 8월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6년 간 지속되며 엄청난 인명 손실과 물자의 소진을 가져온 제 2차 세계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2차 대전 중 전시 동맹을 맺어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과 소련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 세력을 대신해 새로운 슈퍼파워로 등장한 것이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타난 힘의 공백으로 강대국들은 분열되었는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들은 대적하고 서로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었다.¹²⁾ 이 양상은 새롭게 세계의 패권을 겨루게 된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소련의 주요한 충돌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은 폴란드였다. 미국과 영국은 런던의 친서방적인 망명 정부를 지원했고, 소련은 폴란드 내의 친소적인 루블

12) John L.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11.

린(Lublin) 공산 정권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1945년 2월 전시 중 열린 얄타 회담(Yalta Conference)에서 전후 폴란드 정부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긴 했지만, 애매한 타협안으로써 약속된 자유 선거를 통한 정부 구성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 트루먼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련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문제에서 얄타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스탈린(Joseph V. Stalin)은 자국의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판단된 동유럽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해 나갔다. 이것은 동유럽에서 문호개방과 자유선거를 추구한 미국의 정책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였다. 전쟁 중 독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련은, 얄타 회담에서 독일에 20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할 것과 그 금액의 반을 소련이 받을 것을 제의했다. 소련은 안보상의 이유로 독일을 약화시키고자 했기에 막대한 배상금으로 자국 산업의 재건을 계획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해 독일 산업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담(Potsdam Conference)에서 소련에 대한 배상금 액수를 거절했다. 이어 1946년 12월, 미국과 영국은 각각의 점령 지역을 합쳐 ‘공동 지대’(Bizonia)를 만들었다.¹⁴⁾ 소련은 미·영의 이러한 행동은 독일 분단을 획책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자국의 점령 지역에도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갔다. 1947년 3월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담이 열려 독일의 정부 구성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연방제를 원하는 미국과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원하는 소련은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원자 폭탄 문제와 관련해 또한 악화되었다. 전쟁 기간 중 원자 폭탄의 개발 계획에서 소련은 배제되었다. 이 신무기는 1945년 7월 뉴멕시코(New Mexico) 주에서 실험에 성공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가공할 파괴력을 확인시켜 주면서 전쟁을 곧바로 종결짓는 데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은 원폭을 보유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13) 이 타협안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해석은 달랐다. 소련은 ‘자유선거’란, 공산주의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당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선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최영보·이주천·김정배·차상철·박인숙·박성심·이상민·권오신·김진웅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 출판사, 1998), 94쪽.

14) 1949년 5월 이 ‘공동지대’에 프랑스 점령 지역이 합쳐져 9월에 서독이 수립되었다.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소련의 의혹과 불신을 증대시켜 소련이 안보에 대해 더욱 신경쓰도록 자극했을 뿐, 미국의 원폭 보유가 스탈린의 대유럽 정책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46년 6월,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에 제출된 '바루크 플랜'(Baruch Plan)은 미국의 원폭 독점 의지의 표현이었고, 소련은 이를 거부했다.¹⁵⁾ 대신 소련은 국제 감시 이전에 모든 원자 무기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소련의 제의를 거부했고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나갔다. 핵무기의 위협적 힘은 미·소간의 경쟁과 갈등을 격화시켰다.

각각 민주주의 전통과 권위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태도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데에 일조했다. 1946년 초에 이르면, 강경하고 불신감에 찬 태도로 미·소의 관계 악화에 역할을 한 양국의 지도자-트루먼과 스탈린-들은 서로를 전시의 협력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¹⁶⁾ 이런 분위기는 터키와 그리스에서 벌어진 사태들로 인해 명확한 정책 노선을 갖추게 되었다. 1947년 3월 12일, 터키로부터 다다넬즈 해협의 지배권을 양도받고자 한 스탈린과 그리스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원조 자금 요청을 위해 트루먼은 의회에 출석했다. 그는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장한 소수 세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한 전복 시도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민을 돕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을 발표했다.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두 개의 생활방식과 이들의 대결을 전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라로써 소련에 맞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¹⁷⁾ 이로부터 냉전은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미국은 서구,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자신 등 4개의 세계

15) 바루크는 원자력의 국제 통제를 여덟 단계로 나누었다. 원자력 국제 기구 창설, 이 기구에 의한 핵원료의 국제적 통제, 국제적 관리의 규정위반을 막기 위한 엄격한 감시, 원자력 관리와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배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의 세계적 확산, 원자폭탄 제조 금지, 기존의 원자폭탄 파괴, 미국의 원자폭탄 독점 포기가 그것이다. 미국의 독점 포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 둬으로써 미국은 우선 소련에게 원폭 개발과 핵원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단계가 진행될 때까지는 원폭독점을 승인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6) 김진웅, 《냉전의 역사, 1945-1991》(서울: 비봉 출판사, 1999), 39-42쪽.

17) Harry S. Truman, "The Truman Doctrine", March 12, 1947, from Henry S. Commager and Milton Cantor eds., *Document of American History vol II since 1898*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8), pp. 525-528.

주요 산업 지역을 통제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적어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군수 물자의 조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실업, 디플레이션과 같은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미국만이 전후 재건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본을 댈 수 있었다. 이 경제력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원자폭탄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종전 직후의 시점에서 미국은 원자폭탄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우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협상이 필요한 여타 국가들은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의 정책이나 요구를 보다 순순히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원자폭탄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군대 유지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이에 따른 군대 유지비용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위상과 더불어 미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우월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별한 미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는 신화였다.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해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며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세계의 평화와 정의, 번영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스탈린을 히틀러에 투영시킨 반면, 트루먼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과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숭고한 이상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¹⁸⁾ 이렇게 미국은 민족자결주의, 개방적 시장, 집단안보라는 세 가지 윌슨주의적 원칙에 근거한 평화를 수립할 힘을 오직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¹⁹⁾

무엇보다도 2차 대전 종전 직후의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최고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유럽을 구원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아프리카·아시아에 있는 추축국의 식민지들을 해방시켰다. 세계 각국의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두-한때는 스탈린까지도-가 미국을 환영했다. 종전 당시 미국은 정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심 없는 수호신으로 간주

18) 김진웅, 《냉전의 역사》, 38-39쪽.

19) Gaddis, *We Now Know*, p. 13.

되었던 것이다.²⁰⁾ 미국은 전후의 새로운 시대에 그 동안 영국이 맡고 있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미국의 힘과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전세계적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미국은 힘과 위상을 얻었고 아울러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바라보는 전세계의 시선을 얻었다.

2.2 전후 국제적 조류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사람들은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접 대전에 의한 인명 피해는 물론 폭격으로 인해 유럽 각국 주요 도시들의 주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전후 서유럽의 경제는 붕괴 직전에 놓일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은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이었다. 수백만 명의 힘없는 사람들에게 저질러진 만행을 보며,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만 했다. 전쟁의 실상과 결과는 전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1차 대전보다도 훨씬 커다란 규모의 피해를 가져온 이 2차 대전의 발발이 말해 주듯,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수많은 의견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전쟁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종주의에 근거한 정책을 펼친 데에서 기인했다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업신여김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히틀러를 전쟁으로 이끈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이 전쟁으로 사람들은 국제관계가 다시는 인종간의 관계를 떠나서는 고려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종주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²¹⁾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20) 스티브 E. 앰브로즈, 권만학 역, 《국제 질서와 세계주의》 (서울: 을유 문화사, 1996), 73쪽.

21) Paul Gordon Lauren, *Power and Prejudice: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Racial*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인식의 확산은 인권 문제를 전세계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일단 서구의 연합국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원칙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합국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를 유지하는 것이나,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자국내 인종차별 문제는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원칙과는 모순되는 일들이었다. 연합국은 독일과 맞서 싸우면서 나치즘의 인종주의에 반대한다는 원칙들을 피력해 왔다. 1941년의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은 모든 인류가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안전이 보장되는 전후 세계 평화 계획의 원칙을 선언했다.²²⁾ 이듬해의 연합국 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도 대서양 헌장의 이런 원칙에 동의하며, 이 선언에 서명한 국가의 정부들이 “다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도 생명과 자유,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인권과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²³⁾ 이런 원칙들의 공식적 발표는 의문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연합국이 식민지를 유지하는 것이나 자국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좌시한다면 그것은 히틀러의 인종 차별적 태도와 다를 게 없는 일이 될 터였다.

연합국들은 이런 말로 한 원칙과 정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자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치를 규탄했던 태도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본 것은 아니다. 평화 기구 연구 위원회(Commission to Study the Organization of the Peace)는 미국 내의 흑인 차별과 나치의 폭압을 단순히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거부했다.²⁴⁾ 연합국들은 좀더 정확히는 자신들과 관련된 식민지의 유지나 인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되리라는 전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 외무부의 몇몇 관리들은

Discrimin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8), p. 137.

22) 대서양 헌장은 1941년 8월 14일,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 해상의 영국 군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에서 만나 전후 세계 평화 계획에 관한 양국 정책의 공통 원칙을 정하고 공동 선언한 것이다.

23)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from http://history.acusd.edu/gen/WW2Text/declaration_united_nations.html (2003년 9월 1일 검색)

24) Plummer, *Rising Wind*, p. 138.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있어서 인종 문제가 정당화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²⁵⁾ 네덜란드의 국무 총리 P. S. 게르브랜디(P. S. Gerbrandy)는 피부색에 대한 편견 때문에 벌어지는 깊은 국제적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다.²⁶⁾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레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가 미국 내의 인종차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서 싸웠던 적들이 행한 인종 차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 전쟁 기간 동안 인권을 보호하고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자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는 많은 계획들과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후의 세계는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해 유색인에 대한 억압이 자행되는 세계가 아닌, 다른 인종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세계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증거가 속속 출현하면서 1942년 12월에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연합국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Jewish Massacres)이 나왔다.²⁷⁾ 이 선언에 참가한 나라들은 인종 차별과 인권 유린, 대량 학살의 잔인성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며 이 범죄가 국제 사회에서 처벌받을 것임을 결의했다.²⁸⁾ 이렇게 인종 차별 문제가 국제화되면서 제국주의, 이민 제한, 인종 분리(segregation), 반유대주의 등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인종 문제로 인한 국제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싹튼 단계였을 뿐, 그 실천을 위한 구체성은 부족한 상태였다.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인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인권의 확립을 국제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1944년 덤바튼 오크스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소련, 중국, 미국의 대표들이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 계획 수립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이 회의에서 중

25) Britain, Public Record Office, Foreign Office, 371/27889, file F/1899/17/23, "Statement of Relax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Far East":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40에서 재인용.

26) "Dutch Diamonds", *Bombay Chronicle*, February 14, 1942: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40에서 재인용.

27) 미국, 영국, 소련,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국가 위원회가 참여했다.

28)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44.

국은 즉각적으로 인종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 기구의 기본 원칙에 대해 제안한 내용은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의 평등 원칙이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⁹⁾ 이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나머지 세 나라의 대표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제 안전 기구 수립에 인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거나 그런 내용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 반대 이유였다. 결국 인종 평등에 대한 중국 대표들의 제안은 덤바튼 오크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색 인종의 국가가 한 곳만 참여했던 예비 회의 격인 덤바튼 오크스 회의 때와는 달리, 샌프란시스코 회의(San Francisco Conference)에서는 인권과 인종 평등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50개국의 대표들은 전후 세계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것은 국제 문제를 다룰 잘 정립된 새로운 국제 기구의 창립을 위한 모임이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은 전후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인권과 인종 평등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호주나 영국 등 기득권을 취하고 있는 백인 국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인종 문제는 즉각 제기되었다. 인도와 아이티, 우루과이 대표들은 2차 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의 이념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³⁰⁾ 이런 제 3세계 국가들의 연합된 움직임은 덤바튼 오크스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인권 보호와 인종 평등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은 UN 헌장의 첫 장에 명확한 인권 조항을 넣는 것이었다. 런던 기독교·유대인 회의(the Council of Christians and Jews in London) 같은 비정부 조직들도 그들 나라의 대표들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전국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의 W. E. B. 두 보이스(W. E. B. Du Bois)와 월터 화이트(Walter White), 흑인 여성 전국 회의(the National Council of Negro Women)의 메리 맥로드 베크(Mary McLeod Bethune)

29) “Tentative Chinese Proposals for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gust 23, 1944, i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RUS, 1944, 1:718 :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48에서 재인용.

30)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52.

등 미국이 참관자 자격으로 회의에 파견한 인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은 UN 헌장에 인권 조항과 인종평등, 차별금지 조항이 애매한 단어가 아닌 명확한 문장으로 명시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인종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는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파나마 등 제 3세계 국가들 뿐 아니라 프랑스와 소련도 지지를 보였다.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행동을 냉전의 도래로 인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파악했으나, 다른 제 3세계 국가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서구 국가들은 논쟁의 소지가 큰 문제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제 3 세계 국가의 대표들과 비정부 조직의 연합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인권과 인종 평등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된 UN 헌장이 채택되었다. 우선 UN의 목표와 원칙을 명시한 1장(Chapter 1)의 1조(Article 1) 3항은, UN의 목적이 “(전략).. 인종과 성, 언어, 종교의 구분 없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³¹⁾ UN 총회(General Assembly)의 기능과 권위를 명시한 4장에서도 13조 1항에 이와 같은 문구를 쓰고 있고, 55조와 62조의 1항, 76조에서도 인종에 관계없는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추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³²⁾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과에 대해서 기뻐했다. 인권의 존중과 인종 평등이 전후 세계를 이끌어갈 국제 기구의 수립 원칙에 명시적 조항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종 차별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UN 헌장은 실행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이 원칙들은 실제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국가들은 이것이 구속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국제적 원칙을 적용시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UN 헌장은, 본질적으로 자국내 사법권 관할의 문제에는 UN이 끼어 들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2조 7항)³³⁾.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31)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45-1995* vol. VII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5), Document 1, June 26, 1945, p. 143.

32) *Ibid.*, pp. 144-145.

UN 헌장의 성과에 대해 실망했다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UN 헌장은 인권과 인종 문제에 대한 자각의 결과물이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며 인종 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목도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충분치 않은 결과물이었지만 독립과 평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던 많은 제 3세계 국가들과 자국 내에서 억압받고 있던 소수 집단들을 고무시키는 데에는 충분했다.

인권과 인종 문제는 전후 가장 중요하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UN 헌장에 국내 사법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UN 헌장의 인권 조항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 조항이 국내 사법권 관할이 아니라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보급되었다. UN의 첫 번째 회기 동안에도 인종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인도 대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 차별을 비판하며, 비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은 UN과 그 헌장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를 지지하는 측은 공화국 안의 인종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UN이 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축소하려 하였다.³⁴⁾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너무 격렬해지자 총회는 논쟁을 중단시키고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인도인들을 비롯한 소수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국제적인 의무 조항(여기서는 UN 헌장을 말한다)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투표였다. 이것은 인종 차별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나라를 화해시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임무라고 여긴 UN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32개의 회원국이 인도를 지지했고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캐나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15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투표했다. 이 일에서 볼 수 있듯이, UN은 처음부터 인종 차별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직접적으

33) *Ibid.*, p. 143.

34)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59.

로 다루거나 혹은 다룰 수밖에 없었다. UN이 처음부터 단호한 태도로 인종 차별을 규탄하는 입장에 선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그 기반을 갖추어 갔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은 UN이라는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46년, UN 사무총장은 사무국 내에 인권분과(Division of Human Rights)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도 향후 전문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룰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라는 영구적인 기구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비록, 정부 대표들이 아닌 인권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예비위원회의 애초의 방침은 경제 사회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인권 위원회는 탄생했고 1947년 1월에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장은 만장일치로 예비위원회장이기도 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임명되었다. 인권 위원회는 그 첫 회기 동안 인종 차별 금지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만들고 국제 인권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UN 총회는 찬성 48, 반대 0표(기권 8)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과시켰다. 지지자들은 세계 인권 선언이 당장은 원칙을 천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공하는 선에 머물지만, 미래에는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나아가게 할 것에 동의했다.³⁵⁾ 세계 인권 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쓰고 있으며, 2조에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중략).. 등 어떤 종류든 구분 없이 모든 이가 이 선언에서 설명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³⁶⁾

UN 현장의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다. 혁명적인 성과라는 의견도 있었고, 보편성의 개념이 애매 모호하고 실행 조항이 없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인권 선언에 사람들이 부여한 가

35) Lauren, *Power and Prejudice*, pp. 179-180.; "Establishing the system: From the Charter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5-1948)",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p. 24.

3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bid.*, Document 8, p. 153.

치였다. 인권 선언은 전세계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 이것은 이후 나오게 될 여러 가지의 국가별 조약이나 선언에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것은 인권과 인종 문제가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제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의 경험과 전후 세계에 평화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적 노력은 인권과 인종 문제가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인종 차별과 식민 지배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읽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비축해두고 있었다.

3. 미국의 국내 상황

전후 고조된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의 흑인 차별 문제가 국제 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흑인 민권 지도자들은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민권 운동의 추진력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여러 소수 인종들은 백인들이 누리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히 노예였던 전력이 있는 흑인은 가장 철저히 그 권리들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당시 미국 사회가 누리고 있던 민주주의는 백인들만의 민주주의였다. 이런 흑인들의 상황과 인식이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부터였다. 2차 대전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향유한 흑인들은 민권 운동에 박차를 가할 힘을 얻었다. 한편 국내에 불어닥친 반공 열풍 역시 민권 운동의 추진에 도움을 주었다. 냉전 초기 팽배했던 반공주의로 인해 미국은 소련의 대외적 반미 선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되는 미국의 인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3.1 미국 사회의 흑인

미국의 흑인들은 공화국이 수립될 당시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1787년의 헌법 입안 당시에는 시민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백인의 노예로 살아가던 흑인들은 남북 전쟁을 거치며 1865년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 조항 13조³⁷⁾가 발의, 비준됨으로써 비로소 해방되었다. 이어진 헌법 수정 조항 14조³⁸⁾와 15조³⁹⁾는 해방된 흑인에게 처음으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약속했

37) 노예 또는 강제 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Thirteenth Amendment. Section 1. Nev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38) 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할

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속되어 온 흑백 차별을 실생활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화당 정권에 매우 분개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흑인이 고위직에 오르고 백인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굴욕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자 했는데,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비밀 조직이 쿠킴클릭스클랜(Ku Klux Klan, KKK)단이었다. KKK단은 흑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가슴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검고 긴 옷과 눈 주위에 하얀 원을 그리는 등의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흑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흑인들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몰매를 가하는 등 다양한 폭력을 행사했다.

1883년의 소위 민권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수정 조항 14조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주 정부의 인종차별은 금지시켰지만 사조직이나 개인의 인종차별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것은 흑인을 미국 시민으로 선언하고 시민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방정부가 주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1875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조치였다. 흑인들은 이 결정에 분노하여 켈기대회를 열고 법원에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1900년까지 북부와 서부의 18개 주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주(州) 민권법”을 통과시켰으나 연방 차원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부에서는 시민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을

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Fourteenth Amendment. Section 1. All person born of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1866년 6월 13일 발의, 1868년 7월 9일 비준)

- 39) 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그들의 인종, 피부색, 혹은 이전에 노예였던 전력에 의거해 합중국 당국이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빼앗기지 아니한다. Fifteenth Amendment. Section 1. The right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to vote shall not be denied or abridged by the United States or by any state on account of race, color, or previous condition of servitude. (1869년 2월 26일 발의, 1870년 2월 3일 비준)

제정했고,⁴⁰⁾ 흑백 분리를 강화하는 인종차별 관행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갔다. 흑인들은 음식점, 호텔, 병원은 물론 공공오락장소, 극장 엘리베이터, 공원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심지어는 묘지에서까지 백인들과 분리되었다. 이와 같은 남부의 “분리되어 있되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인종분리 관행은 1896년 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Plessy v. Ferguson*)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⁴¹⁾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백인들은 욕설, 폭력, 심하게는 살인에 이르는 흑인 린칭을 자행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극히 미약했다. 20세기 초, 부커 T.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이나 두 보이스 같은 흑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NAACP가 조직되어 민권 운동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들은 남부나 연방 정부의 정책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 동안 남부에서는 이미 1890년대부터 급증한 린칭으로 1919년 한 해에만 70명 이상의 흑인들이 백인 폭도들의 손에 살해되었다. 전쟁에서 돌아온 백인군인들은 북부의 흑인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나아진 상황을 기대하며 군복무를 마친 흑인들은 거의 아무런 기회도 잡을 수 없었다. 1910년대 후반에는 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의 대도시에서 심각한 인종 폭동이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후의 번영기에도 흑인들은 백인들의 호황을 공유할 수 없었고, 그 이후 닥친 대공황(Depression)기에는 백인들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실업, 영양 실조, 질병을 겪었다. 작물 가격의 폭락으로 거의 아무런 소득도 올릴 수 없었던 남부의 흑인들은 1930년대에 대략 40만 명 가량이 북부 도시로 떠나갔다. 하지만 북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어서, 이 당시 흑인의 실업률은 50%에 이르렀다.⁴²⁾ 이 시기에는

40) 조부 조항(grandfather clause)은 1867년 이전에 선거권을 가졌던 부친이나 조부의 자손 이외에 교육받지 않은 흑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부 조항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1898년 윌리엄스 대 미시시피 주 판결(*William v. Mississippi*)에서 문자 해독 테스트를 합법화하였다. 문자 해독 테스트는 투표자들이 헌법 구절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써, 당시의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

41)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에서 인종에 따라 기차 좌석을 분리하여 배치하게 한 州法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시설이 동등하다면 인종별로 분리된 좌석을 주는 것이 흑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학교의 인종 분리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60여 년을 작용했다.

42) 브링클리, 《미국인의 역사 3》, p. 68.

산업조합의 증가로 흑인 조합원이 대량 모집되어, 흑인들이 정치 세력화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흑인들의 삶은 이전과 비교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참정권이 박탈되어 있었고,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3.2 흑인과 제 2차 세계 대전

1930년대까지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과 그로 인한 억압에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루즈벨트의 뉴딜 시기를 맞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인종 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에게 흑인 차별 완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고, 흑인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이 시기 정부 부처에 고용되는 흑인의 숫자가 늘어났고, 뉴딜 구호 프로그램에 흑인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결과 이 시기 흑인들은 보다 폭넓은 교육과 직업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930년과 1940년 사이 흑인의 문자 해독율은 83.7%에서 90%로 증가했고, 숙련직이나 반숙련직에 고용된 흑인의 비율도 23.3%에서 23.8%로 증가했다. 학교에 입학하는 흑인의 비율 역시 늘어났다. 그리고 1935-36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전쟁에서 보여준 흑인 국가 에티오피아의 백인 국가 이탈리아에 대한 거센 저항은, 미국 내의 흑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는 사건이었다.⁴³⁾ 이 사건을 지켜보며 흑인들은 자국 내의 민권 운동과,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한 전세계 유색인들의 항거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⁴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흑인들의 의식 상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2차 대전 기간을 통해서였다. 흑인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자신들의 지위 향상에 도움을 줄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번엔, 자신들의 애국심이 보상받으리라고 여기며 열심히 군복무에 임했으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1차 대전 때와는

43) McCoy and Ruetten, *Quest and Response*, pp. 7-8.

44) Krenn, *Black Diplomacy*, p. 3.

다른 결과를 내기를 희망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긴 불황으로 취약해진 경제력을 대부분 회복했다. 1940년 14%를 기록했던 실업은 1941년 중반에 이르면 모두 사라졌고, 디플레이션, 생산 침체도 모습을 감추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주급은 1941년과 1944년 사이 65%나 증가했고, 1939년 910억 달러였던 국민 총생산은 1945년 1천 6백억 달러로 급등했다.⁴⁵⁾ 그러나 미국 경제에 미친 막대한 영향에 비해, 전쟁 초기 흑인들은 이와 같은 번영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1940년부터 시작된 국가방위 계획에서 90%의 군수산업 납품업자들은 흑인을 배제시키거나 비숙련직으로 제한해 고용했다.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유색인들을 차별했고, 1941년 3월까지 군수산업 직업교육생 17만 5천 명 중 흑인은 4,600명에 불과했다.⁴⁶⁾

흑인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이 직업 기회에 있어 배제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았다. 흑인들은 군수산업에서의 직업차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연방 부처(federal agency)에 로비를 벌이거나 하원 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또한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파업에 참여했는데, 그 중 침대차 짐꾼 노조(Brotherhood of Sleeping Car Porters) 위원장인 A. 필립 랜돌프(A. Philip Randolph)의 활동이 대표적이었다. 랜돌프는 정부로부터 군수 납품 계약을 얻으려는 회사들이 그 작업장 내에서 인종 분리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 조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게 되자 직접 행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1941년 7월 1일, 흑인 10만 명을 모아 워싱턴으로의 전국적인 행진을 거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규모 시위 가능성에 직면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6월 25일 대통령령 8802호를 공포해 무차별 고용 정책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랜돌프는 행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화답하였다. 군수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차별은 없어야 했고, 모든 새로운 군납 계약은 인종, 신념, 피부색, 국적 때문에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했다. 그리고 군수산업체에서의 차별에 대한 모든

45) Gary Gerstle, *American Crucible: Race and N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 199.; 앨런 브링클리, 《미국인의 역사 3》, 152쪽.

46) McCoy and Ruetten, *Quest and Response*, p. 8.; 벤자민 쿨스, 조성훈·이미숙 공역, 《미국 흑인사》(서울: 백산서당, 2002), 218쪽.

문제를 다룰 평등 고용 실천 위원회(Fair Employment Practices Commission, FEPC)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한 성과물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흑인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로부터 작지만 상징적인 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이렇게 흑인들이 정부에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다. 즉 미국의 시민으로서 2차 대전에 참여한 만큼,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흑인들에게 생겨났던 것이다.

공무원 고용에 있어서 FEPC의 활동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의 흑인 비율은 늘어났고, 흑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처도 확대되었다. 1938년과 1944년 사이, 흑인 연방 공무원의 숫자는 82,000명에서 274,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보호직(custodial job)의 비율도 9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1938년부터 4년 동안 워싱턴에 연방직을 보유한 흑인의 1/3 이상이 사무직과 전문직에 고용되었다. 사기업 부문에서도 흑인 고용자의 수는 늘어났고, 노동 조합에 가입한 흑인의 숫자는 1940년 600,000명에서 1945년 1,250,000명으로 늘어났다. 1939년 백인 남성이 받는 봉급의 41.4%만을 받던 흑인 남성 노동자는 1947년이 되면 백인 남성의 54.3%를 받게 되었다.⁴⁷⁾

전쟁 기간 동안 군대 내에서도 흑인이 지위는 진일보했다. 전쟁 초기, 군대에서 흑인들은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다수가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비전투직에 배치되었다. 해병대나 공군에서는 흑인들을 거의 완전히 배제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일단은 군에 복무하는 흑인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40년 인구 비중에 징병 비율을 맞추라는 전쟁부의 방침에 따라 흑인 군인의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해에 벤자민 데이비스(Benjamin O. Davis, Sr.)는 전시 근무를 하는 최초의 흑인 육군 준장이 되었다. 윌리엄 헤이스티(William H. Hastie)는 전쟁부 장관의 민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고, 흑인 육군 중령 캠벨 존슨(Campbell C. Johnson)은 선발징병제 감독관의 보좌관이 되었다. 1943년에 이르면, 육군 징병 응시자의 10%가 흑인으로 채워졌다. 흑인 병사들의 증가에 따라 흑인장교들의 수급 필요성이 늘어나자, 육군은 흑인장교 후보생들이

47) McCoy and Ruetten, *Ibid.*, p. 11.; 왈스, 위의 책, 219쪽.

훈련학교에서 백인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남부 주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42년 말까지 1천 명 이상의 흑인이 소위가 되었다. 또한 디모인(Des Moines)에 있는 여성예비부대에서도 흑인은 백인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1944년 6월에는 뉴욕의 흑인기구 회합의 대표들이 육군 내의 흑백 분리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⁴⁸⁾ 이 모든 사건들은 전쟁을 계기로 흑인의 군대 내 지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해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이 일어나자 프랭크 녹스(Frank Knox) 해군부 장관은, 흑인은 취사병만을 모집한다는 정책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일 아침, 애리조나호의 취사병 도리 밀러(Dorie Miller)가 죽어 가는 함장을 돕고 기관총으로 적기를 격추시키는 공을 세웠다. 이 흑인 취사병이 해군 십자훈장을 받게 되자 녹스의 정책은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42년 4월 녹스는 흑인 지원병이 일반병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사임했다. 흑인들은 해군 훈련기지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원양 전투함에는 배치되지 못하고 흑인 독립부대에만 편성되는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긴 했지만, 흑인들은 이런 부당함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인다거나 시위, 명령불복종 등을 통해 자신들의 항의를 분명히 나타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스미스 사ージェント(Christopher Smith Sargent)와 같은 백인장교들은 효과적인 인력 정책을 추구하며 해군 내의 흑백 통합 노력에 일조했다. 이 시기 해군부 장관 제임스 포레스탈(James V. Forrestal)은 흑인부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조함대에 흑인들을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이윽고 1945년에 이르면, 해군병영과 학교에서의 흑백분리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처럼 군대에서의 변화는 정치적·대중적 압력에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군대의 유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스스로의 인식으로부터도 기인한 것이었다.

흑인들은 인종주의에 대항해 싸워 인종적 평등을 확립한다는 전쟁 목적에 고무되었다. 그것은 곧 국내의 인종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 질 수 있으리라는

48) 쿨스, 위의 책, 227쪽.

희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그들은 국내의 인종 문제와 국제적인 인종 문제를 같은 실에 꿰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본의 서구 식민지 접수로부터도 고무되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세계에 도착한 이후로, 450년만에 최초로 유색인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고 식민지를 거두어 간 것이다. 물론 일본의 승리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행보는 유색인들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인종에 근거한 지배가 종식된 세계를 꿈꾸게 했다.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에게 있어 전쟁은 추축국에 대항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인종적 지배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⁴⁹⁾

전쟁은 흑인들의 의식 변화뿐 아니라 정부와 백인들의 의식 변화도 촉진했다. 정부는 전쟁 동원을 위해 인종이나 계급의 벽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비효율적인 인종 분리 부대 대신 편성한 통합 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945년 초 유럽에서 흑인들을 받아들여 구성한 보병 보충병을 지휘한 백인 장교들은, 유색인 군인들에 대한 질문에서 84%가 “매우 좋았다”라는 대답을 했다.⁵⁰⁾ 그리고 이러한 인종 통합의 긍정적 결과는 그 동안의 인종 차별에 근거한 조치들과 인종 차별의 편견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전쟁 목적 그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히틀러의 인종주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정부의 선전 문구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의 위선을 강조하는 꼴이었다. 진보를 믿은 일부 지식인들은 산업의 진보가 도덕상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믿었기에 남부도 경제구조가 바뀐다면 인종적 편견을 위시한 도덕적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히틀러의 극도의 인종주의와 그것이 야기한 결과 앞에 지식인들은 국내의 상황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⁵¹⁾

민권 단체들은 사법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NAACP는 1930년대부터 흑인 교사에게 백인 교사와 똑같은 봉급을 줄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소송들에 앞장섰다. 1941년 대법원은 미첼 대 국가 판결(*Mitchell v. U.S.*)에서 흑인들에게 풀맨 좌석(풀맨 차량 Pullman car은 침대 설비가 있는 호화스러운 특별 차

49) Gerstle, *American Crucible*, pp. 194-195.

50) 왈스, 위의 책, 226쪽.

51) Gerstle, *American Crucible*, p. 192.

량을 말한다)을 주지 않는 조치를 금지시켰다. 1944년의 스미스 대 올라이트 판결 (*Smith v. Allright*)도 작은 성과를 올렸다. 당시 텍사스(Texas) 주의 민주당은 흑인을 예비선거에서 배제시키곤 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 수정 조항 15조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후 남부의 주들에서 흑인 투표가 늘어나는 것에 도움을 준 조치였다.

2차 대전이 가져온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흑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었다는 것이었다. 흑인 언론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쟁 기간 중 시카고 디펜더(*Chicago Defender*)誌에는, 차별적인 군대에 복무하는 명석하고 용감하고 잘생긴 젊은 흑인 주인공의 공적을 그린 “스피드 잭슨”(Speed Jaxon)이라는 연재 만화가 등장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등장한 “선전한 인형”의 광고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흑인 인형”이라는 문구로 관심을 끌었다. 그 전까지는 머리를 염색하거나 피부를 밝게 하는 화이트닝 제품 등에 관한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에 눈뜨기 시작했다. 1945년 창간된 에보니(*Ebony*)라는 잡지는 유색인 미인들에 대한 기사를 크게 다루는 잡지였다.⁵²⁾ 흑인들의 자기 인식은 변화의 기운을 다루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 대한 각성과 추진력을 제공했다. 전쟁 수행이 그러한 인식 변화를 촉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흑인의 노력과 경험에 더해진 외부의 긍정적 변화들은 고무적인 것이었다. 전쟁을 겪으며 인종 문제에 대한 백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증가했다. 카톨릭이나 유대인 등, 소수의 권리와 평등을 획득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다른 소수 집단들과 연계된 노력은 민권 운동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이었다. 상원 위원 일 때부터 민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트루먼의 대통령 취임 역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이 모든 변화된 분위기와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와 믿음들로, 전후의 흑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종 정의의 실현에 대한 희망에 차 있었다.

3.3 반공주의의 영향

2차 대전 후 미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공주의(anticommunism)는 시간이 지날수

52) McCoy and Ruetten, *Quest and Response*, pp. 17-18.

록 격렬한 모습을 띠어, 1950년에 위스콘신 출신의 상원 위원 조셉 매카시(Joseph R. McCarthy)가 등장한 이후로는 매카시즘(McCarthyism)이라는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양상으로 변모해 갔다.⁵³⁾ 이 시기 미국인들은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 산업과 중요 산업 시설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⁵⁴⁾ 이런 생각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미국인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반공주의의 뿌리는 이미 1919년에 나타났던 적색 공포(The Red Scare)라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1917년 11월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에 뒤이어 1919년 소련 정부가 국제 공산당(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 코민테른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것을 보며, 미국인들은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 전세계를 공산화시키려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미국적 삶의 방식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 급진주의자로 간주된 이들은 린칭을 당하거나 체포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런 분위기는 진정되었으나, 반공주의적 의식은 여전히 남아 2차 대전이 끝난 후 두 번째의 ‘적색 공포’ 시기에 격렬하게 되살아났다.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감은,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제정된 1940년의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일명 스미스법 Smith Act이라고도 불린다)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스미스 법은 폭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단체를 지지하거나 조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냉전의 기운은 광적인 반공주의 열풍을 만들어냈는데, 공화당 위원들이 주축이 된 하원 비미국적 활동 조사 위원회(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를

53) 위스콘신 출신의 초선 공화당 상원위원이었던 매카시는 1950년 2월,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주의 휠링(Wheeling)에서 연설 도중 현재 국무부에서 일하는 205명의 공산주의자의 명단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에 대한 이 대담한 비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고 반복적으로 연방 정부에 공산주의가 침투해 있다는 주장을 확대시켜 나갔다.

54) Ellen Schrecker, *Many Are The Crimes: McCarthyism in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pp. 119-120., p. 154.

비롯, FBI, 법무부, 상원위원 맥카란의 국내 안보 분과위원회(Internal Security Subcommittee), 매카시의 국영 소위원회(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등이 공산주의의 스파이 활동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 작업에 매달렸다. 이 모든 일들은 미국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 존립 자체가 국내의 공산주의 배신자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히스테리 속에서 벌어졌다.⁵⁵⁾ 가열된 반공주의 열기 속에서 점점 힘을 얻은 공화당의 공격을 의식한 트루먼 행정부는 1947년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의 침투 여부를 조사하는 ‘충성심 조사 프로그램’(Loyalty Program)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⁵⁶⁾ 같은 해에 제정된 노사관계법(태프트-하틀리법 Taft-Hartely Act이라고 불린다) 역시 반공주의 열기에 힘입은 공화당 압력의 결과였다.⁵⁷⁾

1948년 앨저 히스(Alger Hiss)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에 벌어진 클라우스 폭스(Klaus Fuchs)의 간첩 혐의 기소, 로젠버그 부부(Julius and Ethel Rosenberg) 기소 등 일련의 사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정부나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요 부처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은 안보를 위한 공산주의 억압의 기제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켰다. 이 사건들은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원폭 개발 성공과 맞물려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에서 원폭의 비밀을 빼내 소련에 넘긴 스파이 활동이 있었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때마침 터진

55) Gerstle, *American Crucible*, pp. 242-243.

56)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체주의적, 파시스트적, 공산주의적 또는 파괴적”인 조직에 가입하거나 동조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한 조치였다. 1951년까지 2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압력하에 사임했으며, 212명이 해고되었다. 해고자들 중에는 알콜 중독자, 동성연애자, 채무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유혹에 이끌릴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었던 것이다.

안윤모, <반공운동>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서울: 비봉 출판사, 2001), 78쪽.; 이주영·황혜성·김연진·조지형·김형인, 《미국현대사: 진주만 기습에서 클린턴 행정부까지》(서울: 비봉출판사, 1996), 126쪽.

57) 이 법은, 일단 노조의 일원이 되어야만 고용될 수 있는 일터인 폐쇄 사업장(closed shop)을 불법화시키는 조치였다. 또한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고용된 후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유니온 샵(union shop)은 허용했지만, 각 주가 유니온 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동권(right to work)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와 노조 지도자들이 이 법을 ‘노예 노동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노조와 노동운동가들에게는 불리한 조치들이었다. 트루먼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폭스 사건과 로젠버그 사건은 이러한 그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미국이 거듭 냉전 구도에서 뒷걸음질치는 것은 매카시의 말대로, ‘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배신활동 탓’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대되었다.⁵⁸⁾ 사람들은 공산주의 전복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이 전복자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려는 열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가열된 반공열풍으로 1950년 의회는 맥카란 국내 보안법(McCarran Internal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든 공산주의 조직이 정부에 등록하고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군수 산업체에서 일할 수 없었고, 여권 발급도 중단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인된 적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매카시라는 선동가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매카시는 국무부를 비롯해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다는 공격을 줄기차게 해냈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강박적인 안보의식과 반공주의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여론을 움직이고 유죄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다. 상원과 하원 위원 모두 매카시에 대항에서 말할 땐 한번 더 생각했다.⁵⁹⁾ 일반 대중들 역시, 공산주의의 전복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다수가 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큰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과장된 그들의 이미지 탓이다. 사실, 반공주의 열풍에 휩싸인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실제 공산주의자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이 그린 공산주의자들 전형의 중심이 되는 가정은 그들이 모두 똑같다는 것이었다. 모든 공산당원들은 스탈린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당의 꼭두각시라고 여겨졌다. 그들은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 아닌, 지적·도덕적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로

58) John Patrick Diggins, *The Proud Decades: America in War and Peace, 1941-196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8), pp. 114-115.

59) 메릴랜드(Maryland)의 민주당 상원위원인 밀라드 타이딩스(Millard Tydings)가 회장으로 있던 상원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공산주의가 침투해 있다는 매카시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매카시는 타이딩스가 공산당 간부에게 컷속말하고 있는 위조 사진을 퍼뜨렸고 타이딩스는 1950년에 재선에 실패했다. 타이딩스의 탈락이 매카시의 보복 조치 탓이든 아니든, 의원들은 말을 조심했다.

Diggins, *Ibid.*, p. 115.

봇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로봇들은 다른 이들도 로봇으로 만들 수 있기에 특히 위험하다. 이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세뇌에 대한 강박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단 한번 공산당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졌다. 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닌 다른 종같이 인식되어졌다.⁶⁰⁾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왜곡된 이미지와 비논리적 유추는 이 시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포심의 정도를 보여 주는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소련과 공산주의는 사악한 악마로 그려질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국내에서 벌어진, 공산주의를 비롯한 급진 성향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 탓에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선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및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에 맞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의 비판과 선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항해 미국 체제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배경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이후 민권 운동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항해 안보와 국민 단합이 강조되는 시기였기에, 반공주의 시기의 개혁 운동은 국민 화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틀 안에서 요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부 남부인들은 트루먼 행정부의 민권정책이 국제 공산주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는 대체로 민권 운동에 호의적이었다. 공산주의가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주적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는 흑인과 다른 마이너리티들은 운신의 폭이 좀더 넓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60) Schrecker, *Many Are the Crimes*, pp. 131-135.

61) 안윤모, 〈반공운동〉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79쪽.

4. 국제 사회의 비판과 미국의 선전 운동

위와 같은 냉전기 국내외적 상황 하에서 미국 내의 흑인 차별 문제는 국제적인 비판 여론에 휩싸이게 되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유색인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를 신랄히 비판했고 대외적 공산주의 선전에 대한 소재로 즐겨 이용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여 미국의 대외적 위상과 그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그들은 흑인 문제에 대한 대외적 선전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미국 이미지의 실추를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흑인 민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4.1 국제 사회의 비판과 여론

전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이를 이용한 민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문제는 점점 전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⁶²⁾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 내에서 2차 대전의 원인이기도 했던 인종 차별이 자행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었으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1946년, 조지아(Georgia) 주의 먼로(Monroe)에서 조지 도시(George Dorsey)를 비롯한 네 명의 흑인 남녀가 무장한 다수 백인들로부터 습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소 60발 이상의 총에 맞은 사체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같은 해, 역시 조지아에서 주 선거에 참여한 유일한 흑인인 마시오스나입스(Macio Snipes)가 자기 집에서 네 명의 백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게다가 애틀랜타에서는 KKK가 부활을 선언하는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남부 주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흑인 린치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의 사건

62) 민권(civil right)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규정되는 권리로써 인권(human right)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인종적인 이유로 동등한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고 인권 유린에 가까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권 운동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를 획득하려는 운동이기도 했지만 인간은 인종에 관계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인권을 보장받으려는 운동이기도 했다.

도 아니었지만 전후의 분위기는 이 사건들에 특별한 관심을 부여했다.

이와 같은 반시대적인 미국내 흑인 인권 유린 사태에 직면한 민권 단체들은 무르익은 국제 여론에의 호소를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1947년에 NAACP가 UN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청원으로 미국 내의 인종 문제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47년 10월 23일, NAACP는 UN의 인권 위원회에 “세계를 향한 호소”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출했다.⁶³⁾ 이 청원은 미국 내의 인종 차별을 비난 하면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 내의 모든 민주주의적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실패는 전세계의 실패라고 하며 이의 시정을 위한 UN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인종 문제가, 전세계 앞에 자신들의 정부에 도전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 계속되는 인종 차별의 정치 외교적 중요성, UN 자체의 역할과 권한 등 향후 20세기에서 가장 복잡한 국제적 문제들과 떨어질 수 없이 뒤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⁶⁴⁾ 세계 각국의 언론,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언론은 이 청원을 예의 주시했고 공산주의자들도 열렬한 관심을 보였다. UN은 끝내 이 청원을 기각했지만 이 일로 인해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는 세계적 주목을 끌게 되었다.

해외,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미국 내의 인종 차별 사례들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전쟁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도맡아 한 미국 내에서 인종 분리나 린칭, 폭동 등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미국의 인종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봄베이 크로니클(*Bombay Chronicle*)誌는, 미국이 전쟁 기간 나치의 인종 선언에 맞서 싸웠으면서 국내에서는 나치와 같은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지적했다.⁶⁵⁾ “미국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흑인”, “흑인 차별은 미국의 오점”, “불가촉천민,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미국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등과 같이, 인도 언론 매체에서 인종

63) 원제목은 “세계를 향한 호소: 흑인계 시민의 경우를 통한 미국 내의 소수 인권 부인, 이의 시정을 위한 UN에 대한 호소 성명”(“An Appeal to the World: A Statement on the Denial of Human Rights to Minorities in the Case of Citizens of Negro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n Appeal to the United Nations for Redress”)이다.

64)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74.

65) “Off My Chest”, *Bombay Chronicle*, June 18, 1946: *Ibid.*, p. 188에서 재인용

문제를 다룬 많은 기사들이 나왔다.⁶⁶⁾ 봄베이나 캘커타의 미국 총영사(consul general)들도 인도 현지 언론에서 점점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련이 때마침 미국의 인종 차별 사건들을 공산주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은 냉전 구도에서는 당연한 이치였다. 트루드(*Trud*, 전 소련 노동조합 중앙 평의회 기관지)誌는, 먼로 린칭 사건 등 남부 주들에서 벌어진 흑인 린칭 사건들을 상술하면서, 남부에서 흑인은 반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⁶⁷⁾ 또, 프라우다(*Pravda*, 구소련 공산당 중앙기관지)誌는, 타민족 억압이 제국주의의 기본 요소였듯이, 인종 차별은 자본주의의 필수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면서, 흑인들은 실상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프라우다는 흑인들에게 연설의 자유가 없고, 백인과 분리된 학교에 다녀야 하고, 백인과 같이 공공 시설을 쓰는 것이 금지되는 등 분리 차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남부 주들의 수를 인용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시키려 하였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소련만이 진정한 자유, 독립, 평등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⁶⁸⁾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도, 소련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자신들 선전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경향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국의 흑인 문제는 소련의 선전 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미국의 가장 확고한 우방인 서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임스 아이비(James W. Ivy)는 유럽의 신문들과 언론들로부터 뽑아낸 500여 개의 기사를 통해, 전후 유럽 언론에 미국 내의 흑인 차별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음을 지적했다. “미국 내 흑인의 비극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흑인은 인간인가?”, “링컨인가 린칭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유럽 언론에 실리곤 하였다. 아이비는 유럽인들이 미국이 내세우는 원칙과 실제 상황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 내의 인종 분리와 폭도들의 폭력 행위 등은 유럽 내 반미주의가 퍼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

66) Frenise A. Logan, "Racism and Indian-U.S. Relations, 1947-1953: Views in the Indian Press", *Pacific Historical Review* 54 (February 1985), pp. 71-79

67)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p. 37-38.

68) *Pravda*, November 17, 1946: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88에서 재인용

했다.⁶⁹⁾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의 문과대학장인 프랭크 스노우덴 2세(Frank M. Snowden Jr.)는 미국의 인종 문제를 다룬 많은 이탈리아 언론이, 미국이 공언한 가치와 실상의 괴리에 대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7년 미국의 인종 차별 기사를 요약한 보고서에는 스웨덴, 그리스, 덴마크 신문들의 비난 기사를 발췌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⁷⁰⁾ 트루먼 시대에 미국 내의 인종 문제를 다룬 외국의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보고서는 쏟아져 나왔다.⁷¹⁾

문제는 국제 사회가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문제를 자각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미국을 방문한 제 3세계 국가들의, 백인이 아닌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가 되었다. 백인이 아니면 그 출신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의 흑인처럼 취급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UN 사무국장이 임명한 유색인 사무국 직원들은 오로지 피부색 때문에 자신들이 미국에서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미국을 공식 방문한 사절들도 레스토랑 출입이나 호텔 투숙이 금지되는 것을 보면서 경악했다. 1947년에 간디(Mohandas Ghandi)의 주치의가 미국 방문 기간 중에 레스토랑 출입 금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곧 그의 고향인 봄베이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⁷²⁾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농경부 장관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Commissioners, Secretaries, and Directors of Agriculture) 회의에 초대받은 아이티의 농경부 장관 프랑소와 조르주(François Georges)가 호텔에서 피부색 때문에 투숙을 거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시시피주 빌럭시(Biloxi)의 빌럭시 부에나 비스타 호텔(Biloxi Buena Vista Hotel)은 조르주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예약을 받은 바 있었다. 조르주는 호텔에 도착한 뒤 그가 흑인이란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들과 같은 호텔에 투숙할 수 없으며, 대신 분리된 다른 숙박

69) James W. Ivy, "American Negro Problems in the European Press", *The Crisis* 57 (July 1950), pp. 413-418.

70) Krenn, *Black Diplomacy*, p. 32.

71)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36.

72) *Ibid.*, p. 39.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조르주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했다. 미국의 아이티 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무부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아이티 정부가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나 회의의 참석을 거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티의 미국 대사는 사과하면서, 향후 비정부 조직으로부터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국무부와 접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⁷³⁾ 국무부는 미국을 방문한 해외 인사들에 대한 이와 같은 처우는 대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냉전기 소련과의 대립 관계에서 미국이 반드시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제 3세계 국가의 인사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인종간의 관계나 문제는 국제 관계나 국제 문제의 한 부분과 같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실론(Ceylon, 1972년에 스리랑카로 개칭)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인종 분리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고 보고한 바 있듯이, 특히 미국 내의 인종 차별은 전후 세계에서 상당한 이목을 끄는 문제였다.⁷⁴⁾ 이것은 전쟁 기간을 통해 높아진 인종 문제에 대한 인식과 승전한 연합국을 이끈 미국의 위치, 미국내 흑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였다. 민주주의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냉전 시대 소련에 맞선 자유 진영의 지도자로서 미국은 그 도덕적 위상을 손상시키는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후 신생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소련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소련의 공산주의 선전에 대항해야 했다. 소련은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를 선전에 즐겨 사용했고,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남부에 남아 있는 분리 정책이나 인종 차별적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소련에 반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인종 문제는 제 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며,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전세계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인종 분리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73) *Ibid.*, p. 40.

74) Lauren, *Power and Prejudice*, p. 193.

흑인들은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를 이용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 시기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비판 문구는, 미국이 국외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를 수호한다고 내세우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흑인을 경멸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등 양자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크라이시스(*The Crisis*, NAACP의 기관지)誌는 1945년 12월 호에서 나치의 인종주의에 맞서 싸운 나라가 아직도 국내외적으로 인종 우월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남부 주들과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서유럽 국가들에 원조를 제공한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 국무장관 제임스 번즈(James Byrnes)가 발칸 반도에 민주적인 선거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주에서의 자유 민주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 행정부의 인종 차별적 성향을 도마 위에 올리기도 하였다. 1947년에도 폴란드에서 행해진 선거에 비판을 보내는 트루먼의 말을 인용하며, 국내-미시시피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선거보다 국외의 선거에 더 관심을 보이는 정부는 국외에서만 옳은 말을 떠들고 다닌다는 비판 기사가 크라이시스誌에 실렸다.⁷⁵⁾ 이처럼 흑인들은 미국이 자국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는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관념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또 흑인들은 이런 국내에서의 인종 차별 사례들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외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인종 문제가 국내 문제의 범위를 넘어가는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NAACP의 사무총장인 화이트는 1951년의 글에서 미국 내의 흑인들에 대한 대우 문제에 관해 외국인들로부터 질문 받을 때마다 난처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약속한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경고했다.⁷⁶⁾ 랄프 번치(Ralph Bunche) 역시 거침없이 자국의 인종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1946년, 미국 기독교회 연방 회의(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에서 미국의 인종 분리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의 불리함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또 1951년 NAACP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인종 차별과 인종 분

75) Krenn, *Black Diplomacy*, pp. 14-15.

76) Walter White, "Time for a Progress Report", *The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September 22, 1951): Krenn, *Black Diplomacy*, p. 16-17에서 재인용

리 문제의 해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말과 실천의 괴리가 이미 이 나라의 위신과 호의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⁷⁷⁾ 이런 그의 발언들은 다양한 매체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또한 트루먼의 대통령 민권 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Civil Rights, PCCR)는 1947년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To Secure These Right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종 차별 문제가 대외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서 PCCR은 민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도덕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국제적인 이유가 그것이다.⁷⁸⁾ 이 보고서는 취약한 민권 문제가 미국이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흑인들의 민권 투쟁이 미국의 대외 관계에서 점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흑인들뿐만이 아니었다.

4.2 국무부의 문제 인식과 선전 운동

정책 입안자들 역시, 외부에서 가해져 오는 비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민권 운동을 벌이는 흑인들의 압박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점점 관심이 증폭되는 주제로서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는 소련의 국제 사회를 향한 선전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다. 국제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로서 국무부의 관리들은 자신들의 외교 성과가 인권에 있어서의 좋지 않은 기록들로 손상될 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PCCR이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에서 인용한 국무 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의 편지를 보면 이와 같은 관리들의 문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FEPC의 회장에게 보내

77) 국무부 관리였던 번치는 흑인으로서 두드러진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그는 1941년 전략 사업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기구에 직접 포함된 최초의 흑인이 되었다. 1944년에는 국무부로 옮겨 UN 수립 계획에 참여했고, 1946년에는 UN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고, 1947년부터는 국무부를 떠나 UN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힘쓴 업적으로 195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러한 번치의 성공 탓으로, 그는 미국의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예로 자주 인용되었다.; Krenn, *Black Diplomacy*, p. 17.

78)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p. 79-80.

는 편지에서, “이 나라에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집니다...(중략)..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비판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중략)...우리 나라에 대해 의심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들을 제거할 때 우린 더 나은 국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⁷⁹⁾ 대통령인 트루먼 역시 국제 관계에 있어 인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1948년 2월 의회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위치 덕에 인권 문제가 시급해졌다고 말하며, 미국은 나라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⁸⁰⁾ 트루먼은 또한 전국 인권 동원 긴급 회의(National Emergency Civil Rights Mobilization Conference)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인권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⁸¹⁾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 의식은 1947년 홀더만(J. W. Halderman)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의 공격을 단순한 선전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믿고 있는 자유 진영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깨뜨리려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에 대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⁸²⁾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무부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 의식을 자극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책에 접근하고자 했다. 일단 국제 사회의 비판은 무마시켜야 했던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NAACP 같은 흑인 단체로부터 조

79) President's Committee on Civil Rights, *To Secure These Righ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 p.148: *Ibid.*, p. 80에서 재인용

80) Harry S. Truman,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Civil Rights", February 2, 1948 from <http://www.yale.edu/glc/archive/972.htm> (2003년 9월 5일 검색)

81) Harry S. Truman, "Remarks to a Delegation From the National Emergency Civil Rights Mobilization Conference", January 17, 1950, *The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rry S. Truman, 1950*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p. 115: Krenn, *Black Diplomacy*, p. 36에서 재인용

82) J. W. Halderman, "Motivation of Propaganda on Civil Rights", July 17, 1947, Records of PCCR, Box 6, State Department file, 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Independence, MO: Krenn, *Black Diplomacy*, p. 33에서 재인용

언을 듣고 인물을 등용하면서 흑인 문제와 대외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해 정부가 민감해하고 있음을 대중들에게 더 널리 인식시키고자 했다. 국제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는 선전 캠페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⁸³⁾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가 대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국무부는 국제 사회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선전전을 펴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1940년대 후반부터 인종 문제에 대한 국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런 캠페인의 기본적인 주제는 일단 미국 내에 인종 차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개선 중임을 강조하며 흑인도 미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이 시기 캠페인이나 팸플릿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전략이었다. 또 전세계에 알려진 미국 내의 인종 문제는 소련 선전 때문에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소련 선전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1947년에 시작된 “미국에 대한 진실”(The Truth About America)이라는 캠페인은 이러한 국제 선전의 일환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사회와 미국 정부의 지향하는 바와 정책에 대한 완전하고 올바른 인상을 전세계에 심어주는 것이었다. 영화, 라디오, 출판물 등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⁸⁴⁾

국무부와 미국의 목소리(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보국(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국제 출판물 분과(International Press and Publication Division, INP) 등은 미국의 인권 문제를 다룬 선전을 전세계에 보급하는 활동을 벌였다. VOA는 번치나 UN 총회의 미국 대표였던 에디스 샘슨(Edith Sampson), 저명한 흑인 작가인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흑인 명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보내며, 이런 진전된 흑인의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소련의 직접적인 공격을 피해 보고자 했다. INP는 흑인의 성공 사례를 요약한 “흑인 기록”(Negro Notes) 같은 소책자나 인종 문제를 다룬 영화 필름을 제공했는데, 이런 영화들 안에서 흑인과 백인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USIS는 흑인을 다룬 책이나

83) Krenn, *Black Diplomacy*, p. 34.

84) *Ibid.*, p. 37.

신문, 언론 기사 등을 모으는 작업을 펼쳤는데, 이 기사들의 대부분은 흑인의 입지 상승을 보여주는 개인을 다룬 기사로서 전체적인 흑인들 문제를 다룬 것은 별로 없었다.

이런 선전 활동에는 의도적으로 기획된 출판물도 이용되었다. 1950년에 나온 “흑인계 미국인들”(Americans of Negro Descent)은, 흑인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번치, 유네스코의 미국 대표였던 찰스 존슨(Charles S. Johnson), 두 보이스 등 특별한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 흑인의 진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기본적으로 흑인은 이미 미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였다. USIS의 출판물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의 흑인”(The Negro in American Life)이었다. 이 책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으로서, 형식은 “흑인계 미국인들”처럼 흑인들의 역사를 서술한 뒤 흑인의 삶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미국 내의 인종 차별이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런 부끄러운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함께 보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일부러 결점을 들추어 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일종의 전략이었다. 즉, 전세계의 사람들이 미국의 실상에 놀라면서도 그런 정보와 이념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미국 정부의 민주적인 태도를 높이 사 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 책은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캠페인이나 출판물들, 영화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무부는 곧 흑인들을 이러한 선전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부정적인 세계 여론을 잠재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임을 간파했다. 이에 국무부는 미국의 흑인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흑인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 후원하는 방법을 실행에 옮겼다. 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회의(Council of African Affairs, CAA)의 창립자인 맥스 예르간(Max Yergan)이 1952년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해, 미국 내 흑인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연설 활동을 벌였다. 같은 해 선더스 레드딩(Saunders Redding)도 국무부의 후원 아래 인도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 레드딩은 미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도인들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며 해외 여타 국가에 대한

원조도 제국주의의 도구 이상은 아니라고 여겼다.⁸⁵⁾ 또 그들은 미국의 대사관에 흑인이 별로 없다는 사실로부터도 인종 차별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다. 이 점은 인도 대사인 체스터 보울스(Chester Bowles)가 특히 강조해 왔던 것이었다. 그는 측근이나 국무부 관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거듭 인종 문제가 해외에서 미국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흑인 외교관의 채용을 추천해 왔다. 그는 인도인이 흑인 관리를 더 허물없게 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인도인이 미국의 흑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⁸⁶⁾

국무부나 해외 근무지에 흑인을 고용하라는 압력은 국내의 흑인 민권 운동가들이 자주 제시했던 방안이기도 했다. 국무부는 여러 부처 중에서도 특히 백인 일색인 곳으로 유명했다. 국무부는 그 시초부터 이런 경향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 점 때문에 국무부는 민권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흑인들이 국내의 인종 차별이 대외 관계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권 운동을 펼칠 때 직접적으로 조명을 받은 곳이 바로 국무부였다. 대외 정책을 세우고 해외 각국에 대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맡는 부서이니만큼 국제 사회의 비판에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전세계를 향해 미국을 대표하는 부처였기에 국무부 내에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이었다.

국무부는 전통적으로 흑인의 숫자가 적었고 고용된 대부분의 흑인들이 낮은 직책에 배치되어 있었다. 하워드 대학의 교수인 레이포드 로건(Rayford Logan)이 1950년, 피츠버그 쿠리어(*Pittsburgh Courier*)誌에 쓴 일련의 논설은 국무부의 흑인 고용에 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 13,000여명 가운데 흑인은 33명에 불과했다. 고용된 흑인들 중 유럽에 파견된 직원은 단 둘 뿐이었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⁸⁷⁾ 로건의 글은 그 동

85) "Touring Schedule" and "Report of Jay Saunders Redding", September 30, 1952, folder 416, box 111, series 2, Chester Bowles Papers, p. 1 of Report: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58에서 재인용

86)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59.

87) Krenn, *Black Diplomacy*, pp. 19-20.

안 국무부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던 ‘흑인 서킷(Negro Circuit)’의 존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다. 1869년 에베네저 바셋(Ebenezer D. Bassett)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아이티에 공사로 임명되고, 1871년 J. 밀튼 터너(J. Milton Turner)가 라이베리아에 공사로 임명된 이후로, 흑인들의 해외 근무지는 이 구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카나리아 제도, 아조레스 등의 이른바 ‘흑인 서킷’만이 흑인들에게 열려 있는 제한된 근무지들이었다. 1925년부터 해외근무관리(Foreign Service Officer, FSO)로 근무한 클립튼 와튼(Clifton Wharton, Sr.)은 1949년까지 24년 동안 이 ‘흑인 서킷’ 안에 묶여 있었는데, 이 24년 동안 FSO가 된 흑인은 5명뿐이었다.⁸⁸⁾

전후 국무부는 좀 더 많은 숫자의 흑인 고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1948년 에드워드 더들리(Edward R. Dudley)의 라이베리아 공사 임명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관습적으로 흑인을 공사에 앉히는 흑인 서킷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들리의 임명은 그때까지의 구색 맞추기와는 조금 달랐다. 전후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라이베리아가 새롭게 군사적, 경제적-철광석, 목재 등의 천연자원-인 중요성을 띠게 된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굳건한 우방이 되고자 했고, 라이베리아에 6,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⁸⁹⁾ 이와 더불어 라이베리아의 미국 공관은 대사관급이 되었고, 더들리는 최초의 흑인 대사가 되었던 것이다. 이 결정은 국내 인종 문제와 그 국제적 관심 사이 상호 작용의 결과였다. 더들리의 대사 승진은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더들리는 재임 기간 동안 흑인들의 부임지로 못박혀 있는 ‘흑인 서킷’을 부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신생 독립한 제 3세계 국가들을 냉전 구도에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흑인이 대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전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찰스 헨슨(Charles Hanson)이 취리히로 가는 등 대사관 직원들이 라이베리아를 빠져나가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다. 더들리의 라이베리아 재임 기간 동안, 루퍼트 로이드(Rupert Lloyd)가 프랑스 대사관에 영사로 가고 윌리엄 조지

88) *Ibid.*, pp. 45-46.

89) *Ibid.*, pp. 48-49.

(William George)가 코펜하겐에 영사로 가는 등 다른 흑인 FSO들도 라이베리아를 벗어났다. 인도 대사인 보울스도 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해외에서의 미국 이미지 손상에 대해 경고하며, 흑인 외교관의 임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국내에서는 랜돌프, 화이트, 존슨 등 흑인 지도자들이 트루먼과 국무부 장관 애치슨을 만나서 국무부의 인종 차별적 인사가 미국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음을 강조하며, 계속적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이 시기 번치가 국무 차관으로 지명되고, 국무부에 근무하는 흑인의 숫자도 증가하는 등 굳건한 백인 집단이었던 국무부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구체적인 문제 의식이 점차 실제적 노력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전 양상은 여전히 미흡했다. 국무부에 고용된 흑인의 숫자는 여전히 작았고, 대부분이 낮은 직책에 배치되었다.

국내의 흑인 차별 문제로 인해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한 미국과 국무부는 당장 그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해결 방안들을 내놓았다. 캠페인, 소책자 발행, 연설 여행 등을 통한 대외 선전 활동과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흑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흑인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나쁜 평가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것들이었다. 그러니 실제 선전 활동의 효과는 미진했고, 흑인의 고용 기회도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즉,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1952년의 미국 선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 문제를 공산주의가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⁹⁰⁾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비판 여론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인 보장과 같은 현실적인 개혁 성과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질적인 인종 차별이 극명한 것은 인종 분리가 인정된다는 것이었고, 그 심각성은 교육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었다.⁹¹⁾

90) "Status Report on the National Psychological Effort and First Progress Report of the Psychological Board," Aug. 1, 1952, folder 391.1, box 22, Papers of Psychological Strategy Board, Truman Library, p. 3.;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61에서 재인용

91) 인종적으로 분리된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의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은 고등교육과 취업의 길을 좁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고급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흑인의 입지를 제한했고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었다.

5. 흑인 민권의 성과와 국제 여론

국무부의 대외적 선전 활동은 정부가 비판적 국제 여론과 이것이 미국의 대외 관계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을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선전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흑인 민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 민권 단체들과 흑인의 오랜 염원이 국제 사회의 시류와 맞물려 브라운 판결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시대의 이 판결은 그 실행에 있어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급기야는 리틀락(Little Rock) 사건으로 점화되었다. 미국의 인종 문제 중 리틀락 사건만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은 없었다.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비판이 대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아이젠하워의 리틀락 사건 중재에 한 동기를 제공했다.

5.1 법적 성과와 브라운 판결

트루먼은 그의 전임자들 누구보다도 민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⁹²⁾ 트루먼은 민권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번번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그의 임기 중에는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령을 발동시키거나 특정 문제에 법무부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흑인 차별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트루먼의 이런 노력은 군대에서

92) 트루먼은 상원 위원이 되기 전부터 흑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트루먼은 세력 범위 안에 있는 흑인들을 보호해 왔던 탐 펜더개스트(Tom Pendergast) 조직의 잭슨 카운티(Jackson County) 지부에 있었고, 카운티 판사가 된 이후에도 펜더개스트의 흑인 정책을 따랐다. 상원 위원이 되고 나서도 그는 미주리 주의 흑인들을 후원했으며, 1935년 코스티건-와그너 반린칭 법안(Costigan-Wagner antilynching bill)을 지지했다. 그는 또 전국유색인민주연합(National Colored Democratic Association)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 그 의장인 톰킨스(Dr. William J. Thomkins)는 1940년 트루먼의 상원 재선 캠페인을 열렬히 지지했다. 이것은 흑인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트루먼은 1940년 선발 징병법(Selective Service Act)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수정 조항을 지지했고, 인력 고용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민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대통령이 되기 전 그의 민권 운동에 대한 기록은, 흑인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의 인종 분리 금지 명령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부터 군대 내의 인종 분리는 특히 문제가 되었다. 외국에 주둔하는 부대들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NAACP의 사무총장 화이트가 지적했듯이, 미군 부대 내의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현지 유색인 군인들도 차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⁹³⁾

2차 대전이 끝나고 출현한 냉전 시기에는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했는데, 인종적으로 분리된 군대는 미국의 위신과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PCCR은 군대 내의 인종분리는 2차 대전을 수행한 이념과 모순된다며 즉각적인 철폐를 촉구했다. 의회에서 실패한 트루먼은 1948년 7월 26일, 군대 내의 차별을 금지하는 대통령령 9981을 발동시켰다. 이 명령은 미국 군대 안에서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명령 아래에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원래 국적에 상관없이 군대 내에서는 대우와 기회는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쓰고 있다.⁹⁴⁾ 트루먼은 민권 문제가 냉전기 대외 정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강박적인 안보 의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의회를 통한 법률 제정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낀 트루먼 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흑인 차별에 맞선 싸움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1948년, 셸리 대 크레이머 판결(*Shelley v. Kraemer*)을 시작으로 민권 케이스에 법정 고문(amicus curiae)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은 흑인이 이웃 주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흑인 구매자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는 백인들의 서약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브리프를 통해, 흑인에게 제한적인 부동산 계약은 헌법

93)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p. 83-84.

94) President Harry S. Truman, executive order, "Establishing the President's Committee on Equality of Treatment and Opportunity in the Armed Services, Executive Order 9981" from Richard Maidment and Michael Dawson eds.,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Key Documents* (London: Hodder & Stoughton in association with The Open University, 1994), pp. 201-202.

수정 조항 14조와 15조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진술했다. 이 브리프는 미국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문제 때문에 대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무부의 견해를 얘기하며, PCCR의 ‘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에서 인용했던 애치슨의 편지를 다시 신고 있었다.⁹⁵⁾ 국내 민권 문제의 해결이 미국의 외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로써 판결에 압력을 넣고자 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주민 서약을 집행하는 데에 법정이 이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949년 헨더슨 대 미국 판결(*Handerson v. United States*)의 법무부 브리프에서도 인종 문제와 미국 대외 관계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주간 통상 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는 남부 철도 회사(Southern Railway Company)가 흑인 승객들에게 기차의 식당칸 안에서 커튼 뒤의 분리된 자리를 주는 것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주간 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 위반이 아니라고 여겼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동등”하면 합법적이라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조치가 주간 통상법 위반이며 헌법 수정 조항 14조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법무부는 또한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가 외국 언론에서 빈번하게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브리프에서 법무부는 UN의 회의 자리에 모인 다른 나라 대표들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소련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며 민권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UN에 참가한 소련 대표는, UN 총회에서 UN 헌장의 원칙들을 무시한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련의 볼셰비키(*The Bolsheviki*)誌가 미국 내의 흑인 혐오가 심해진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도 브리프에 인용되었다.⁹⁶⁾ 이와 같이 직접적인 국제 사회의 비판-특히 공산주의-을 실으면서, 법무부는 민권 문제가 소련의 공산주의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차의 식당칸 분리는 주간 통상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교육과 관련된 판결에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민권 문제 해결의 대외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맥로린(G. S. McLaurin)은 연방 법원에서의

95)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p. 19, *Shelley v. Kraemer*, 334 U.S. 1(1948):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91에서 재인용

96) Brief for the United States, *Handerson v. United States*, 339 U.S. 816 (1950):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92에서 재인용

분리에 대한 투쟁 끝에 오클라호마 대학(Oklahoma University)의 대학원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막상 들어간 대학 내에서 인종 분리를 겪었다. 도서관, 강의실, 학생 식당 등에서 그는 배정된 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매클로린 대 오클라호마 州 고등교육위원 판결(*McLaurin v. Oklahoma State Regents for Higher Education*)이다. 이번에도 법무부는 인종 차별 문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최악의 문제이니 대법원의 판결이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대법원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것은, 스위트 대 페인터 판결(*Sweatt v. Painter*)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텍사스 대학(Texas University)의 로스쿨(Law School)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허먼 매리언 스위트(Heman Marion Sweatt)는 소송을 제기해 주법원(state trial court)에서 이 조치가 헌법 수정 조항 14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텍사스 대학 측은 흑인 로스쿨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응했는데, 물론 시설이나 도서관 등에서 백인 학교와는 엄청난 격차가 났다. 대법원 측은 이 두 사건에 대해 흑인 원고들이 교육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결론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련의 성과들은 법무부의 노력 외에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루즈벨트와 트루먼 시대를 거치며 임명된 판사들은 흑인 민권 문제에 어느 정도 동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법적 성과들은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의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비록 이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이젠하워 시대로 넘어가서이지만, 학교 안의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트루먼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1950년 9월, 캔자스(Kansas) 州의 토피카에 사는 올리버 브라운(Oliver Brown)은 그의 8살 난 딸 린다를 집에서 불과 4블록 떨어진 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의 교장은 캔자스 주의 분리법을 이유로, 린다의 입학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린다가 흑인 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다. 이에 올리버 브라운과 다른 흑인 부모들은 항의를 표명했고, NAACP와 함께 캔자스의 토피카 교육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참여했다. 이 소송은 린다 브라운에게 입학할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수정 조항 14조의 동등한 권리의 보호라는 구절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⁹⁷⁾ 1954

년 5월 17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가 의심할 여지없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백인들의 시설과 동등할 경우에 흑인들에게 별도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1896년의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을 무효화한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 시스템은 아무리 그 시설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설명했는데, 분리된 학교는 어린 흑인 학생들의 마음에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분리된 학교는 흑인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헌법 수정 조항 14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듬해인 1955년에는 “브라운 판결 2”(Brown II)라고 알려진 판결에서, 모든 분리된 학교는 신중한 속도로 흑백 통합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NAACP를 비롯한 민권 운동가들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 브리프 역시 그 동안의 일관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1952년 12월, 법무부 장관 제임스 맥그래너리(James P. McGranery)가 제출한 이 브리프는 “...인종 차별은 공산주의 선전에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와 우방인 나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 신념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쓰고 있다.⁹⁷⁾ 이것은 국무부 장관 애치슨의 말을 길게 인용함으로써 뒷받침되었다. 애치슨은 국내의 인종 차별 때문에 외국의 언론, 라디오, 그리고 UN 같은 국제 기구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미국에 적대적인 소련 선전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 내의 인종 분리 문제에 대한 UN과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유, 정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지지자라고 선포한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⁹⁸⁾ 법무부는 브리프를 통해 민권 문제의 해결이 대외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대법원의 분리 철폐 판결을 촉구했던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법원 고문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셸리 대 크레이머 판결에서부

97) 각주 35를 참조하라.

98) Brief for the United States as Amicus Curiae, p. 6,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347 U.S. 483;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00-101에서 재인용

99) *Ibid.*, p. 8.

터, UN 헌장의 이념들도 언급되기 시작하였다.¹⁰⁰⁾ 위에서 살펴본 헨더슨 대 미국 판결, 스위트 대 페인터 판결, 그리고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에서도 UN 헌장에 명시된, 인종에 관계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논의에 쓰여졌다. 인종 문제는 대외적 중요성을 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결과였다.

이와 같이 냉전 시기 대외 관계의 중요성은 국내 민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미국 정부는 인종 차별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외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부를 통해 각종 인종 문제 케이스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민권 개혁의 성취를 이용해 가중되는 외부적 압력을 무마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선전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소련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했다.

5.2 브라운 판결에 대한 반응과 리틀락 사건

브라운 판결은 국제 사회로부터 미국이 원하던 반응을 이끌어냈다. 해외 언론은 브라운 판결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다카르(Dakar)에 있는 미국 영사가 보낸 급보에 따르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브라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모든 인종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주간지인 아프리카 누벨(*Afrique Nouvelle*)誌는 “마침내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게재했다.¹⁰¹⁾ 1954년 8월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 보고서(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브라운 판결은 노예 해방 이후로 가장 위대한 결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미 선전 무기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빼앗아 온 것으로 여겨졌다.¹⁰²⁾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인도에서,

100) Plummer, *Rising Wind*, p. 201.

101)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08.

102)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tus of United States Program for National Security as of June 30, 1954," NSC 543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11:1777, 1785-1786:

브라운 판결 당시의 대법원장이었던 얼 워렌(Earl Warren)의 명성은 대단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소련의 반미 선전을 맞받아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제 3세계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내의 사정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흑인을 비롯한 민권 운동가들은 이 커다란 성과에 대한 열광이 채 식기도 전에, 그 실행이 결코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는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워싱턴 D.C. 같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공립 학교에서의 흑백 통합이 이루어졌다.¹⁰³⁾ 그러나 남부의 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또다시 길고 고통스런 투쟁을 필요로 했다. 남부인들과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흑백 분리가 남부의 삶의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의 상원위원 해리 버드(Harry F. Byrd)나 조지아의 허먼 탈머지(Herman Talmadge)같은 이들은 연방 정부의 권력에 반대할 권리가 州에게 있다는 남북 전쟁 이전의 논의를 끄집어냈다.¹⁰⁴⁾ 또 탈머지는 인종 문제가 소련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택해야 하느냐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¹⁰⁵⁾ 심지어 존버치회(John Birch Society) 같은 우파 조직은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인종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공산주의의 음모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⁰⁶⁾ 남부의 많은 주들은 여러 가지 전략들로 교묘하게 브라운 판결의 실행을 회피했다. 예를 들면, 학급을 학생의 능력에 따라 배정한다는 명목 하에 각각의 인종을 다른 시간대에 등교시키거나 여러 가지의 입학 신청서와 긴 인터뷰를 요구해서 흑인 부모들을 단념시킨다는 식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라운 판결의 시행에 대한 남부의 저항은 점점 체계적이 되어 갔는데, 이것은 일정 부분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었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09에서 재인용

103) 이것은 워싱턴이 수도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수도는 전세계를 향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의 인종 문제는 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했다.

104) Diggins, *The Proud Decades*, pp. 284-285.

105)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11.

106) Diggins, *op. cit.*, p. 285.

다. 기본적으로 아이젠하워는 평등이나 민권 문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는 연방 정부가 민권 운동과 학교의 인종 통합을 지지하는 것을 꺼렸다. 브라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얼 위렌을 임명한 것은 내 가장 바보같은 실수였다” 라고 말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실제 아이젠하워는 브라운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다.¹⁰⁷⁾ 그는 인종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이런 논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남부 주들에서 법원이 명한 인종 통합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재하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런 아이젠하워의 애매한 태도에 힘입은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은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브라운 판결 2는 모든 분리된 학교에 통합 명령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하진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남부 주들에게 꾸물거리며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었다. NAACP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앨라배마(Alabama) 州는 NAACP를 불법화시켰고, 거의 모든 남부의 주들은 학교에 대한 권리를 지방 학교 위원회로 넘기는 법을 통과시켰다. 1957년까지 남부의 3,000개의 학교 중 684개 학교만이 인종 통합 명령을 받아들였다. 남부의 주들 중, 통합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주는 4개에 불과했다.¹⁰⁸⁾ 브라운 판결로 민권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시에 또 다른 긴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브라운 판결을 둘러싼 투쟁은 1957년의 리틀락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1957년 9월 4일, 아칸소(Arkansas) 州 리틀락 소재의 센트럴 고등학교(Central High School)에 들어가려던 9명의 흑인 학생들이 아칸소 州軍(National Guard)에 의해 저지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주지사 오벌 퍼버스(Orval Faubus)가 학교의 인종 통합에 반대하여 주군에게 센트럴 고등학교를 둘러싸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사태에 연방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리틀락 9인”(Little Rock Nine)이라 불린 흑인 학생들은 3주 동안 학교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법원의 학교 통합 명령을 무시한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리틀락 사건은 브라운 판결, 몽고메리(Montgomery) 승차 거부 사건¹⁰⁹⁾ 등 동

107) Chafe, *The Unfinished Journey*, p. 154.

108) 브링클리, 《미국인의 역사 3》, 224쪽.; Diggins, *The Proud Decades*, p. 284.

시대의 다른 어떤 민권 사태보다도 크게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아칸소 가제트(*Arkansas Gazette*)誌는 소련의 선전방송인 라디오 모스크바(Radio Moscow)가 미국이 인종통합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쁜 듯이 방송하고 있고, 특히 리틀락 위기가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¹⁰⁾ 런던 타임즈(*London Times*),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誌, 탕가니카 스탠다드(*Tanganyika Standard*)誌,¹¹¹⁾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誌 등 전세계의 많은 신문들이 9월 내내 거의 매일 리틀락 사태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¹¹²⁾ 타임즈 오브 인디아誌의 9월 6일자 맨 앞면에는 “무장 군대가 백인 학교차단: 아칸소 주에서의 인종 통합 저지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¹¹³⁾ 런던 타임즈 9월 4일자에는 학교에서의 인종 통합 문제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아이젠하워식의 점진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¹¹⁴⁾ 또한 해외 언론은 리틀락 사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네덜란드의 신문들은 리틀락 사태가 미국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했고, 아일랜드의 아이리쉬 타임즈(*Irish Times*)誌는,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의 對제3세계국가 선전에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¹⁵⁾ 그 말대로 소련은 반미 선전에 리틀락 사건을 널리 이용했고, 소련 내의 언론과 보도 매체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곤 했다. 소련의 이즈베스티야

109) 1955년 12월,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Rosa Parks)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앞자리인 백인용 좌석에 앉아 올라탄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앨라배마 주의 州法은, 흑인들이 버스 뒷자리에 앉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크스가 체포당한 것에 분노한 흑인 조직들은 몽고메리 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펼침으로써 항거했다. 이 운동은 1년 이상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다. 이 몽고메리 승차거부 운동은 이후 민권 대중 운동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110) *Arkansas Gazette*, September 11, 1957, p. 2A, reprinted in Record and Record, *Little Rock, U.S.A.*, 48-49;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18에서 재인용

111) 탕가니카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공화국인데, 이후 1964년 잔지바르(Zanzibar) 공화국과 합쳐져 지금의 탄자니아가 되었다.

112)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19.

113) *Times of India*, September 6, 1957, p. 1;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19에서 재인용

114) *Times(London)*, September 4, 1957, p. H10

115)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20.; American Embassy, Dublin, to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23, 1957, RG 59, 811,411/9-2357, National Archives: *Ibid.*, p. 120에서 재인용

(*Izvestia*, 구소련정부 기관지)誌는 소위 ‘미국적인 민주주의’라는 허울 뒤에서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며, 리틀락 사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UN 총회의 재판소에 나와 헝가리 국민들의 권리 운운하는 것보다 더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모독은 상상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¹¹⁶⁾

전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국무부에 도착한 급전들 역시 리틀락 사태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의 실추를 걱정하는 내용들이었다. 코펜하겐(Copenhagen)에 있는 덴마크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전보에 따르면, 리틀락 인종 문제에 대한 지역 언론과 일반 덴마크인들의 반응 때문에 업무가 지장 받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로부터의 보고에는 네덜란드인들이 리틀락 사태에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며, 어떤 이들은 히틀러의 방법과 미국 인종주의자들의 행동을 비교하기까지 한다고 쓰고 있다. 수리남(Surinam)의 미국 대사는 리틀락 사태가 터지고 나서 나온 미국의 인종 문제에 대한 비판이 그가 수리남에 머물고 나서부터 그 직전까지 나온 비판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¹¹⁷⁾

국내에서도 국제 사회의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퍼버스와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리틀락 사건의 평화적인 해결은 중요하며, 공식적으로 퍼버스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퍼버스는 법무부가 학교의 인종 통합 실행을 연기하도록 한다면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버텼다. 이와 같이 퍼버스가 법원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리틀락 사태를 중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결국 9월 20일, 연방 법원의 판사인 로널드 데이비스(Ronald N. Davies)가 학교의 인종 통합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뒤에야 퍼버스는 센트럴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던 주군을 철수시켰다. 그러자 “암흑의 월요일”(Black Monday)이라고 알려진 9

116) *Izvestia*, September 13, 1957, p. 4, reprinted in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9(October 23, 1957): 25-26;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p. 121-123에서 재인용

117) Copenhagen to Secretary of State, September 5, 1957, RG 59, 811.411/9-557, National Archives; American Consul General, Amsterdam, to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6, 1957, RG 59, 811.411/9-1657, National Archives; American Consul, Paramaribo, to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8, 1957, RG 59, 811.411/9-1857, National Archives;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p. 125에서 재인용

월 23일, 흥분한 백인 군중들은 난동을 일으켰다. 연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날 아침 8명의 흑인 학생이 센트럴 고등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을 본 백인들은 취재 나온 기자들을 폭행하고 급기야는 경찰들에게 덤비기 시작했던 것이다. 흑인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한 리틀락의 시장 우드로 만(Woodrow Wilson Mann)과 센트럴 고등학교의 교장, 경찰 간부는 수업을 모두 마치기 전에 흑인 학생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흑인 학생들은 어두운 길을 따라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차 두 대에 나눠 타고는 머리를 바짝 숙인 채, 빠른 속도로 돌과 막대기를 집어던지는 백인 군중들을 통과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¹¹⁸⁾ 아이젠하워는 이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장인 만은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서 연방군(federal troops)의 도움이 즉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틀락의 상황은 통제를 벗어나 경찰은 날뛰는 군중들을 더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9월 25일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1,000명의 낙하산 부대를 센트럴 고등학교에 보내 폭도들을 진압하고 평화를 유지하게끔 했다.

아이젠하워가 리틀락 사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인종 통합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충실하고자 했고, 당장은 선거상의 손실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¹¹⁹⁾ 게다가 연방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종 문제가 소련의 반미 선전에 좋은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의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수많은 해외 언론이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9월 24일, 리틀락 사태에 대한 최초의 대통령 공식 성명에서도 드러났다. 국무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리틀락 사태가 미국의 대외 관계에 끼칠 악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를 인식하고는, 법무 장관 허버트 브라우넬(Herbert Brownell)과의 의논 끝에 대통령 연설문 초안에 이 문제를 강조하는 문장을 넣고자 했다. 아이젠하워는 공식 성명에서 리틀락 사태가 공산주의 선전에 악용되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18)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 Episode 2: Fighting Back (1957-62)* from PBS Video (Produced by Blackside, Inc., Boston, MA, 1986)

119) Burk, Robert Frederik,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Black Civil Rights*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4), p. 186.

고 말함으로써 덜레스의 조언을 따랐다. 대통령은 “...(전략)..우리는 UN 현장에서 전세계 인류가 함께 제창한 행동 양식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려지고 있습니다..(중략)..연방 법원의 지시에 저항하는 것을 즉시 중지한다면 더 이상의 연방군의 주둔은 필요 없어질 것이고 리틀락은 평화롭고 질서가 지켜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올바른 이름과 높은 위상에 떨어진 얼룩도 곧 지워질 것입니다...(후략)”라고 말했던 것이다.¹²⁰⁾ 결국 그는 리틀락에 연방군을 보내 평화를 유지하고 인종 통합이 시행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초기 냉전 구도 안에서 미국 내의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은 민권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이 문제가 미국의 대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되는 것을 두고 보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소련은 흑인 문제를 예로 들어 미국이 위선적인 나라이며, 그런 미국의 체제보다는 자신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제 관계와 그 영향력 축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흑인 민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민권 운동가들 역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흑인 민권 운동에 더 큰 힘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흑인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민권 운동이 전개된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변화된 국제적, 국내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여러 민권 개혁의 토대 위에 펼쳐진 것이다. 브라운 판결과 리틀락 사건은 본격적인 대중 민권 운동이 나타나기 위한 1단계 개혁 운동의 결론적 성과들이었다.

120) Dwight D. Eisenhower, "Radio and Television Address to the American People on the Situation in Little Rock," September 24, 1957 from Commager and Cantor eds., *Document of American History vol II since 1898*, pp. 623-625.

6. 결론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두드러진 대중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50, 60년대의 활발한 민권 운동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변화된 상황들로부터 이미 그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전후 흑인 민권 운동의 진전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특히 대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변화한 국제 사회의 조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재난을 겪은 인류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국제 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종전 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런 종전 후의 변화된 조류는 미국 내의 흑인 민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의 원인을 히틀러와 나치의 인종주의에서 찾은 사람들은 인권의 존중이 세계 평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도록 촉구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유색인들과 더불어 미국의 흑인들도 목소리를 크게 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조류를 파악하고 이를 민권 운동의 추진력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전세계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나치의 인종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내세우는 미국이 자국 내의 인종 차별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이념에 모순될뿐더러, 세계 평화의 이념에도 모순되는 일이었다. 인종 차별이 지속되는 한 미국은 위선적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이 점을 부각시켜 미국 내의 인종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여론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종전 후 미국은 공산 진영을 대표

하는 소련과 대립하며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계의 양대 축으로서 두 나라는 세계 각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경쟁을 벌였다. 이에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적 체제가 소련의 그것보다 우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자국 내의 흑인 차별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전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들의 대부분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유색인종 국가였기에 이들을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미국은 자국의 흑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적대하고 있는 소련은 미국의 흑인 문제를 자신들의 대외 선전의 소재로 즐겨 이용하고 있었다. 소련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상술하며 미국은 위선적인 나라라고 선전 활동을 펼쳤다. 국제 사회의 모임에서도 소련은 미국의 흑인 문제를 들추어내며 비판하곤 했다. 전후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반공 열풍에서 알 수 있듯, 안보에 민감했던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두고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인종 차별 문제는 더 이상 미국 내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인종 차별 문제가 미국의 대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입안자들도 차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국내 문제가 소련의 공산주의 선전에 의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뿐이라며 이를 무마하고자 했지만, 점점 거세어지는 국내외적 압력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국무부는 미국의 흑인 문제를 다룬 대외적 선전 활동을 그 타개책으로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흑인이 노예였던 시절부터 흑인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현재 성공한 흑인 인사들의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많은 진보를 이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 국무부는 저명한 흑인들을 직접 해외로 보내 연설 활동을 펼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선전 프로그램의 효과는 미비했고 실질적인 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위신은 손상될 것이고 대

외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다. 이렇게 국제 사회의 비판과 대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흑인 차별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법무부가 법정 고문으로 참여한 여러 민권 케이스의 브리프에서 보여지듯, 정부는 국내의 인종 차별 문제가 대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흑인 측의 입장에 서서 법원 판결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역사적인 브라운 판결에 대한 법무부 브리프에도 드러난다. 브라운 판결은 그 시행 과정에서 남부의 저항에 부딪쳐 리틀락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연방 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재하고자 한 것은 국제 여론의 비판과 이로 인한 미국의 입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50년대 중반까지의 냉전 초기에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은 변화한 국제 정세로 인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국제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민권 운동의 진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미국의 민권 문제에 대한 국외의 압력이 이 시기 민권 운동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 아님은 자명하다. 국내에 배양되어 있던 민권 운동 세력의 오랜 투쟁과 노력이 이 시기에 중요한 결실들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대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했고, 이 시기의 국제적 조류는 민권 투쟁에 긍정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국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들어서는 시기의 특징적인 사실들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전후 평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UN을 비롯한 국제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세력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대외 이미지를 유지하고 제 3세계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이런 요인들은 초기 민권 운동의 진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대중 민권 운동의 성과에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시기에는 우선 인종 차별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접 행동을 추구한

1960년대 민권 운동의 활력은 1950년대까지 불거진 문제 의식의 성숙과 구체적 행동·실천을 기획한 많은 민권 단체들의 활동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문제 의식을 촉발시키고 전파시키는 것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행동을 통한 대중 운동에 있어서는 그 내적 토대의 단단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차 사료

사료집

Commager, Henry S. and Cantor, Milton, eds., *Document of American History vol II since 1898*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88)

Maidment, Richard and Dawson, Michael eds.,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ieth Century: Key Documents* (London: Hodder & Stoughton in association with The Open University, 1994)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1945-1995 vol. VII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5)

인터넷 사이트

http://history.acusd.edu/gen/WW2Text/declaration_united_nations.html

<http://www.yale.edu/glc/archive/972.htm>

영상 자료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 Episode 1: Awakenings(1954-56) from PBS Video (Produced by Blackside, Inc., Boston, MA, 1986)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 Episode 2: Fighting Back(1957-62)

잡지 기사

Cushman, Robert R., "Our Civil Rights Become a World Issue", *New York Times*, January 12, 1948

Ivy, James W., "American Negro Problems in the European Press", *The Crisis* 57 (July 1950)

2차 사료

단행본

벤자민 팔스, 조성훈 · 이미숙 공역, 《미국 흑인사》 (서울: 백산서당, 2002)

스티브 E. 엠브로즈, 권만학 역, 《국제 질서와 세계주의》 (서울: 을유 문화사, 1996)

앨런 브링클리, 황혜성 · 조지형 · 이영효 · 손세호 · 김연진 · 김덕호 공역, 《미국인의 역사 3》 (서울: 비봉 출판사, 1998)

조지프 나이, 양준희 역, 《국제 분쟁의 이해》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1)

김덕호 · 김연진 엮음, 《현대 미국의 사회운동》 (서울: 비봉 출판사, 2001)

김진웅, 《냉전의 역사》 (서울: 비봉 출판사, 1999)

이주영 · 황혜성 · 김연진 · 조지형 · 김형인 공저, 《미국 현대사: 진주만 기습에서 클린턴 행정부까지》 (서울: 비봉 출판사, 1996)

최영보 · 이주천 · 김정배 · 차상철 · 박인숙 · 박성심 · 이상민 · 권오신 · 김진웅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 출판사,
1998)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9)

Alperovitz, Gar,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London: Secker
& Warburg, 1966)

Berman, William C., *The Politics of Civil Rights in the Truman Administrati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0)

Burk, Robert Frederik,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Black Civil Rights*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84)

Chafe, William, *The Unfinished Journey*, 2nd ed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Diggins, John Patrick, *The Proud Decades: America in War and Peace,
1941-1960*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8)

Divine, Robert A., *Eisenhower and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Donovan, Robert J., *Conflict and Crisis: The Presidency of Harry S. Truman,
1945-1948*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77)

- Dudziak, Mary L., *Cold War Civil Rights: Race and the Image of American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Gaddis, John Lewi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1941-194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_____, *We Now Know, : Rethinking Cold War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Gardner, Lloyd C., *Architects of Illusion: Men and Ideas in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Chicago: Quadrangle Books, 1970)
- Hunt, Michael M., *Ideology and U. S. Foreign Polic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 Kluger, Richard, *Simple Justice: The History of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Black America's Struggle for Equal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80)
- Krenn, Michael L., *Black Diplomacy: African Americans and the State Department, 1945-1969* (Armonk: M. E. Sharpe, 1999)
- Lauren, Paul Gordon, *Power and Prejudice: The Politics and Diplomacy of Racial Discrimin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88)
- LeFeber, Walt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66*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7)

Leffler, Melvyn P., *A Preponderance of Power: National Security, the Truman Administration, and the Cold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2)

Paterson, Thomas G., *Major Problems in American Foreign Policy Vol. II: since 1914*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1978)

Plummer, Brenda Gayle, *Rising Wind: Black Americans and U. S. Foreign Affairs, 1935-196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McCoy, Donald R. and Ruetten, Richard, *Quest and Response: Minority Rights in the Truman Administration* (Lawrence: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73)

Schrecker, Ellen, *Many Are The Crimes: McCarthyism in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Spanier, John W.,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3rd rev. ed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8)

Von Eschen, Penny M., *Race Against Empire: Black Americans and Anticommunism, 1937-1957*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Haines, Gerald K. and Walker, J. Samuel eds., *American Foreign Relations: A Historiographical Review* (Westport: Greenwood Press, 1981)

Williams, William Appleman,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rev. and

enlarged edn. (New York: Dell Pub. Co., 1962)

Eyes on the Prize: America's Civil Rights Years—A Reader and Guide (New York: Penguin Books, 1987)

논문

김정배, 〈냉전의 기원: 공존과 지배의 전략〉, 《미국사 연구》 5 (1997), 135-161쪽.

박인숙, 〈미국외교사와 '국제사' 문제〉, 《미국사 연구》 11 (2000), 191-211쪽.

안윤모, 〈매카시즘의 우파 대중주의적 성격〉, 《미국사 연구》 8 (1998), 285-308쪽.

차상철, 〈매카시즘과 스탈린주의 그리고 냉전의 심화〉, 《미국사 연구》 10 (1999), 237-264쪽.

최영보, 〈냉전기원의 탈수정주의적 해석〉, 《미국사 연구》 3 (1995), 127-163쪽.

Kelley, Robin D. G., "But a Local Phase of a World Problem: Black History's Global Vis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6 (December 1999), pp. 1045-1077.

Laville, Helen and Lucas, Scott, "The American Way: Edith Sampson, the NAACP, and African American Identity in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20 (Fall 1996), pp. 565-589.

Lawson, Steven F., "Freedom Then, Freedom Now: The Historiography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merican Historical Review* (April 1991), pp. 436-471.

Logan, Frenise A., "Racism and Indian-U. S. Relations, 1947-1953: Views in the Indian Press", *Pacific Historical Review* 54 (February 1985), pp. 71-79.

Thelen, David, "The Nation and Beyond: A Special Issu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6 (December 1999), pp. 965-975.

"Symposium: African Americans and U. S. Foreign Relations", *Diplomatic History* 20 (Fall 1996), pp. 531-563.

ABSTRACT

Black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Early Cold War Years

Yim, Ji Yon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issues of the Cold War and civil rights movement has often been considered that the former was a diplomatic problem and the latter only domestic one. After the World War II, however, external pressure from the Cold War began to play a monumental role in the civil rights reform.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is external pressure on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early Cold War years.

Immediately after the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locked themselves into their bitter struggle known as the Cold War. As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the United States had to show a kind of moral superiority of its own. And the war experience convinced people that Nazi's racism caused the terrible war so racial equality couldn't be divorced from the world security and peace. With these atmosphere the United States domestic racial discrimination possessed widespread notoriety. It would have negative implication for foreign relations. Moreover, the color bar was the greatest propaganda gift for the Soviet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idea that racism was a blot on the nation was to become a very familiar theme. The fact that the African-Americans were organized as never before were also important. During the war period, the African-Americans got the optimism and leadership and an improved financial and political condition

to sustain the drive for equal rights. People who wanted to eliminate racial discrimination determined to work with this mood and external pressures.

Civil rights activists focused on the fact that race discrimination harmed foreign relations seriously. Then policy makers slowl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merica's domestic racial problem was now a foreign policy problem. International criticism of the U. S. racial discrimination could not be left unanswered. The State Department, faced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ssures to confront the issue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civil rights, therefore, conducted an various overseas propaganda programs dealing with America's racial problems. But these efforts was not fully successful. More specific efforts were needed to solve the racial problems and address the criticisms.

Then the Justice Department tried to participate in the civil rights cases. As and amicus curiae, the Justice Department stressed to the Supreme Court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focused on the negative impact on U. S. foreign relations. All of these efforts played a role in leading up to landmark desegregation case of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Little Rock crisis, caused by the desegregation opponents, was also mediated by aid of foreign pressures.

In conclusion, the external pressure from the early Cold War years helped the civil rights reform and activism. African-Americans, improved during the war period, made use of this international condition on their civil rights movement.

Key words : Cold War, Civil Rights Movement, African-Americans, World War II, Foreign Relations, Soviet Union, Propaganda Programs, Brown v. Board of Education, Little Rock Crisis